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8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국악기

## 지도 방안 연구

- 장구와 단소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창 미

#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국악기 지도 방안 연구

- 장구와 단소를 중심으로 -

The directions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in Music  
Textbooks for 1st grade of Middle School  
- Centering on the Jang-goo and Dan-so -

2009 년 8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창 미

#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국악기

## 지도 방안 연구

- 장구와 단소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한 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 년 4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창 미

김창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한   나      인

2009 년    6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 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제 2장 국악기 분류 및 특징 .....	4
제1절 국악기 분류 .....	4
제2절 장구와 단소 특징 .....	7
제 3장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국악기 분석	21
제 4장 장구와 단소의 교수- 학습 지도 방안 .....	42
제1절 장구 교수 - 학습 과정안과 지도 내용 .....	42
제2절 단소 교수 - 학습 과정안과 지도 내용 .....	51

제5장 결 론 ..... 56

참고문헌

부록

## 표 목 차

<표 1>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9종 음악 교과서 .....	6
<표 2> 장구 구음표 .....	16
<표 3> 교학사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	23
<표 4> 동진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	24
<표 5> 두산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	26
<표 6> 성안당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	28
<표 7> 세광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	30
<표 8> 아침나라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	32
<표 9> 지학사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	35
<표 10> 천재교육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	38
<표 11> 태성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	39

<표 12> 출판사별 국악기 내용 비교 (유사명칭통일) .....	41
<표 13> 출판사별 장구의 게재된 내용 비교 .....	42
<표 14> 출판사별 단소의 게재된 내용 비교 .....	43
<표 15> 장구 교수 - 학습 과정안 .....	44
<표 16> 단소 교수-학습 과정안 .....	53

## 그림 목 차

[그림 1] 장구의 구조 .....	12
[그림 2] 장구 치는 방법 .....	15
[그림 3] 입술모양 .....	18
[그림 4] 단소 부는 자세 .....	19
[그림 5] 손 잡는 방법 .....	20
[그림 6] 단소 음역과 운지법 .....	21

## 악보목차

[악보 1] 우리나라 꽃 .....	22
---------------------	----

## 부록목차

<부록 1> 세마치장단의 기본 장단 .....	62
<부록 2> 세마치장단의 변형 장단 .....	63
<부록 3> 밀양 아리랑의 변형 장단 연주 악보 .....	64
<부록 4> 단소 기초 연습 .....	65
<부록 5> 정간보 .....	66

# ABSTRACT

The directions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in  
Music Textbooks for 1st grade of Middle School  
- Centering on the Jang-goo and Dan-so -

Chang-mi Kim

Prof. Advisor: Han-na Lee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Music always lives in our life. There have been music activities in our life from the beginning and human society has formed outstanding music culture from ancient period. For example, music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our religious rites as well as work and play ground. So what music gives us is infinite.

All the music in this world is created and is products by human creativity. Musical creativity is represented in pieces and performance of music. Activities of singing, playing instruments and listening good music awaken creative potential of students through music.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music education should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music education makes students' life abundant. Students are instructed to represent their emotion or ideas through music, which contributes to higher

quality of their life and becoming whole-pers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ses Korean traditional music through pictures and photos based on a total of nine kinds of music textbooks for grade 1 of middle schools according to the 7th curriculum and then figures out solutions to problems in them. For the purposes, this study presents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plans, focusing on double-sided drums and short bamboo flutes that are presented in all the textbooks.

To apply the results of this study for actual program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ability of teachers to deal with instruments should be improved and instrumental music at regular classes in middle schools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In addition, we need more opportunities to educate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students should have more positive recognition on it.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수많은 세월의 시간이 말해주듯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숙하여온 우리의 음악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지닌 민족의 음악 즉 ‘국악’이다. 국악은 우리 역사의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오랜 전통을 지닌 값진 예술이다. 그래서 한민족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 한국인 누구나가 한국인의 특유의 신명과 음악적 감성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이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기악 활동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악기로 표현하며 미적 체험을 하고, 음악 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음악활동이다. 단순히 제재곡을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되며, 연주를 통해 음악 개념을 형성하고 연주력을 향상시키며 연주 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음악이 소리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행위이고 소리를 구체화하는 “물적 매개물”이 악기라고 본다면 국악에서는 “국악기”라는 물적 매개물이 필요하다. 1)특히 국악은 화음보다는 선율을 중심으로 한 음악이기 때문에 선율을 구성하는 각 음의 음악적인 문맥 속에서 의미를 갖기 위하여 각 음마다 독특한 시김새를 갖는데 이러한 독특한 시김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악기를 통해 연주하게 하는 경

---

1)이동남, 『유아 및 초중등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 (용인:경기 문화의 전당 국악당, 2005), p.129

힘이 필요하다.<sup>2)</sup> 시김새는 우리 음악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표현기법 중의 하나이다.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 또는 흘러내리는 음, 꺾는 음 등을 일컫는 용어로 가창, 감상수업에서도 시김새를 다루기는 하지만 이론적 설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악기를 연주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현행 제 7차 음악 교육과정 중에서도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이라 하여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기 위한 국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학생들에게 전통음악을 자주 접해 볼 기회를 가지게 하고 이론 수업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악곡을 노래하고 연주하고 만들고 듣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sup>3)</sup> 그래서 음악 교과서에서도 전통 음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음악의 비중을 꾸준히 높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통음악의 비중을 꾸준히 높여 오고 있는 반면, 잘 짜여진 교육과정에 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과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조사에 의하면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전통음악을 지도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sup>4)</sup>

본 연구자는 국악 강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국악수업을 할 때 늘 느껴왔던 점은 학생들이 국악에 대한 흥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국악에 대해 늘 지루하며 재미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좋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국악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

2) 전영태, 『소금의 단계적인 연주지도 방안 연구』 (진주: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1

3) 교육 인적 자원부, 『중학교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지학사, (2001). p.13

4) 연구보고 RRC 2001-13,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연구(Ⅰ)』 서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2001), p.277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양음악에 편중되어있는 우리의 수업 현실을 국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악 전공자로서 학교 현장에서 국악 수업을 보다 흥미롭게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음악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았다. 그 중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여 정규 수업시간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장구와 단소의 지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악 기악교육의 활성화의 방안으로 장구와 대금 교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그에 따른 지도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쉽게 장구와 단소를 지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과 더불어 학생들이 학습을 통하여 보다 쉽고 흥미 있게 우리의 음악적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악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제7차 음악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9종류의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이해와 창작, 기악과 감상 영역 중 ‘국악기악’의 영역만을 선택하여 각 출판사들이 학습 하도록 한 국악기를 분석 한다.

그 중 9종류의 출판사마다 학습하도록 나온 국악기인 장구와 단소만을 선택 하여 그 중심으로 연구한다. 장구와 단소는 유래와 구조를 통해 악기의 특징과 연주법을 살펴보고 단소의 특성상 정간보 독보법을 따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음악 체험을 바탕으로 교수 - 학습 과정안과 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다. 교수 - 학습 과정안은 2차시로, 1차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민요<sup>5)</sup>를 먼저 학습했다는 가정 아래 연구 한다.

---

5) 장구는 ‘밀양 아리랑’, 단소는 ‘도라지 타령’ 이다.

장구 장단 수업은 ‘밀양 아리랑’의 장단인 세마치장단을 기본 장단의 구성으로만 끝나는 연주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요 특유의 음악적인 문맥을 보다 잘 살리 수 있도록 노래의 구성에 맞는 세마치장단의 변형장단을 학습하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단소 연주 수업은 기본적인 정간보 보는 법을 학습하여, 단순히 제재곡의 율명만을 외우고 연주하는 방법의 수업이 아니라 언제든지 혼자서도 다른 민요를 연주할 수 있는 연계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연구한다. 다음은 본 연구를 위해 제 7차 음악 교과서의 범위를 정리한 표이다.

<표 1 >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9종 음악 교과서

출판사명	저자
교학 연구사	조창제
동진음악출판사	김준수, 이동훈
(주) 두산	이홍수 · 황병훈 · 이성훈 · 김향정
성안당	최필립 · 김영재 · 신금식 · 유제향
세광 음악출판사	고춘선 · 홍종건
(주) 아침나라	윤경미 · 문진
(주) 지학사	윤명원 · 김영희
(주) 천재교육	백병동 · 최현 · 문경해 · 홍기순 · 김은하
도서출판 태성	서한범 · 주대창 · 홍수진 · 신주연

## 제2장 국악기 분류 및 특징

### 제1절 국악기 분류

국악기의 분류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팔음에 의한 분류법 이고 둘째는 음악계통에 의한 분류법 이다. 그리고 셋째는 소리 나는 원리에 의한 분류법이

고 넷째는 연주법에 의한 분류법이다.

### 1. 팔음(八音)에 의한 분류<sup>6)</sup>

국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를 팔음(八音)이라 한다. 그래서 팔음(八音)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금부(金部)는 쇠붙이로 만든 악기로 편종, 특종, 방향, 징, 나발, 썰과리, 양금과 같은 악기로 구성되어있고, 두 번째 석부(石部)는 돌로 만든 악기로 편경, 특경이며 세 번째인 사부(絲部)는 명주실로 만든 악기인데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비파가 여기에 해당 된다. 네 번째는 죽부(竹部)로 대나무로 만든 악기이다. 대금, 피리, 단소, 당적, 통소가 있으며 다섯째인 포부(匏部)는 박으로 만든 악기로 생황이 있고 여섯 번째 토부(土部)는 흙으로 만든 악기로 훈, 부가 있고 일곱 번째 혁부(革部)는 가죽으로 만든 악기 장구, 좌고, 소고, 용고, 갈고, 건고가 있으며 여덟 번째 악기인 목부(木部)는 나무로 만든 악기 박, 축, 어가 있다.

### 2. 음악 계통에 의한 분류<sup>7)</sup>

음악 계통에 의한 분류법에는 크게 아부(雅部)와 당부(唐部), 향부(鄉部)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부(雅部)에는 특종(特鐘), 특경(特磬), 편종(編鐘), 편경(編磬),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뇌고(雷鼓), 영고(靈鼓), 노고(路鼓), 뇌도(雷鼗), 영도(靈鼗), 노도(怒濤), 도(鼗), 절고(節鼓), 진고(晉鼓), 축(祝), 어(敵), 관(管), 약(箛), 화(和), 생(笙), 우(竽), 소(簫), 적(箏), 부(缶), 훈(塤), 지(箎), 슬(瑟), 금(琴),

6)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된 분류법에 따라 현행 악기들을 분류한 것임.

7) 『악학궤범』에 나타난 분류법

독(斗), 정(旌), 휘(麾), 조촉(照燭), 순(鎗), 탁(鐳), 요(鏡), 탁(鐸), 응(應), 아(雅), 상(相), 독(牘), 적(翟), 간(干), 척(戚)의 45종의 악기가 있다. 두 번째 당부(唐部)에는 방향(方響), 박(拍), 교방고(敎坊鼓), 월금(月琴), 장고(杖鼓), 당비파(唐琵琶), 해금(奚琴), 대쟁(大箏), 아쟁(牙箏), 당적(唐笛), 당필률(唐箏:당피리), 통소(洞簫), 태평소(太平簫)로 13종의 악기가 있으며, 세 번째로 향부(鄉部)에는 현금(玄琴:거문고), 향비파(鄉琵琶), 가야금(伽倻琴), 대금(大琴), 중금(中琴), 소금(小金), 소관자(小管子), 초적(草笛), 향필률(鄉箏:향피리)의 9종의 악기가 있다.

### 3. 소리 나는 원리에 의한 분류<sup>8)</sup>

소리 나는 원리에 의한 분류는 크게 현명악기와 공명악기, 그리고 피명악기와 체명 악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현명악기(絃鳴樂器, Chordophones)에는 거문고, 가야금, 아쟁, 양금, 해금, 금, 슬, 대쟁, 당비파, 향비파, 월금, 수공후, 와공후가 있으며, 두 번째 공명악기(共鳴樂器, Aerophones)에는 대금, 중금, 소금, 당적, 단소, 통소,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태평소, 나발, 나각, 훈, 지, 약, 적, 소가 있다. 세 번째인 체명악기(體鳴樂器, Idiophones)는 편종, 편경, 징, 팽과리, 자바라, 박, 특종, 특경, 방향, 축, 어, 부, 운라가 있고 네 번째 피명악기(皮鳴樂器, Membranophones)에는 장구, 좌고, 용고, 교방고, 소고, 절고, 진고, 노고, 노도, 갈고, 응고, 뇌고, 영고가 있다.

### 4. 연주법에 의한 분류

8) 쿠르트 작스(Curt Sachs)와 호른보스텔(E. M. Von Hornbostel)에 의한 분류법:비유럽의 음악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타악기부분을 세분화한 분류 방법

연주법에 의한 분류는 첫 번째로 관악기이다. 이 중, 가로로 부는 악기에는 대금, 중금, 소금, 당적, 지가 있고, 세로로 부는 악기 중 서를 사용하는 악기로 겹서에는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태평소가 있으며 홀서는 생황이 있다. 그리고 서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에는 약, 적, 소, 통소, 단소, 나각, 나발, 훈<sup>9)</sup>이 있다. 두 번째로 현악기에는 해금, 아쟁이 있고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 당비파, 금, 슬, 대쟁, 월금, 공후의 발현악기와 양금의 타현악기가 있다. 세 번째는 타악기로 편종, 특종, 편경, 특경, 방향, 운라의 유율악기와 자바라, 징, 라, 대금, 팽과리, 박, 축, 어, 부, 장구, 갈고, 진고, 절고, 좌고, 소고, 용고, 교방고, 노고, 노도, 뇌고, 뇌도, 영고, 영도, 도, 건고, 삭고, 응고, 중고, 무고<sup>10)</sup>의 무율악기가 있다.

## 제2절 장구와 단소 특징

### 1. 장구 특징

가죽으로 된 피명악기는 우리나라에도 교방고, 장구, 좌고, 소고, 용고, 절고, 진고, 노고 등 많은 악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가운데 가죽으로 된 타악기의 하나인 장구라는 명칭은 ‘채로 치는 북’이라는 뜻이며, 양쪽이 크고 그 허리 부분이 가늘다 하여 세요고 라고도 한다 .

장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고려 문종(文宗) 30년(1076) 대악관현방을 정리 하였을 때 장고업사(杖鼓業師: 장구 연주자라는 뜻)가 있었다는 기록이다.<sup>11)</sup> 이보다 더 오래된 자료는 고구려의 요고(腰鼓)와 신라통일 이후에 속하는 상원사, 동종의

9) 훈은 취악기로서 관으로 된 것이 아니다. 팔음 중 토부에 속하는 공명악기 이다.

10) 이성천 외, 『알기쉬운 국악개론』, 도서출판풍남,(2004), pp.203~206

11) 국립국악원, 『국악 교육의 이론과 실기』(서울 : 국악연구실, 1990), p161

아래 띠 (하띠)의 주악도, 감은사에서 출토된 청동제 사리기단 등에 새겨진 그림에서 볼 수 있다. 고구려나 신라시대의 장구는 요고(腰鼓)라고 하였고 무릎위에 놓고 칠 정도로 현재의 장구보다 훨씬 작은 모양을 가졌다.

<고려사>악지에 의하면 장구는 당악기와 향악기 속에 모두 들어있고, 조선조 성종 24년(1493)에 편찬한 <악학궤범> 장고 조에는 “당악과 향악에 아울러 쓴다”고 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장구는 고려이후 당악·향악의 합주 및 노래와 춤의 반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지금도 장구는 관현 합주·세악·독주반주·무용반주·농악·무악·정악·산조·잡가·민요 등 전통음악 전반에 걸쳐 편성되고 있다.

장구는 원래 한가지로 전래 하고 있지만 요즈음 음악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구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반주 장구에는 가곡, 가사, 시조, 산조, 무용, 민요, 잡가 등의 반주를 비롯한 정악의 전반적인 반주를 하는 장구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구이다. 두 번째인 무용장구는 장구춤 등을 출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장구가 너무 크면 그 무용의 춤사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장구를 무용하는 사람에 맞춰 작게 만들어 메고 춤을 춘다. 무용장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주 장구에 비하여 그 소리는 매우 높고 가볍다. 세 번째로 농악의 장구는 농악을 할 때 사용하는 장구이며 전통장구에 가까우나 사람에 따라, 또는 지방에 따라 그 크기가 각각 다르고 할 수 있다.

장구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장구의 역할 또한 다양하다. 전통음악의 관현악합주에서 장구는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 서양음악에서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음악을 연주하지만 전통음악에서는 장구의 장단에 따라 합주를 한다. 즉 장구 연주자의 시작과 끝을 장구로 알려 준다거나 강약을 이끌어 간다거나

박자의 변화나 빠르기의 변화를 알려준다거나 하며 음악을 이끌어 간다. 그리고 장구는 반주자의 역할을 한다. 즉, 합주에서는 장구 연주자가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반주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주나 독창, 병주나 소규모의 합주를 세악이나 현악합주에서는 장구로 반주를 한다. 즉 전통음악에서는 판소리를 제외하고는 장구가 반주를 한다.

장구는 통의 양쪽에 가죽을 묶어 만든 양면고(兩面鼓)이다. 통은 허리 부분이 가늘고 잘록한 모양이다. 통의 재료는 원래 사기, 기와, 나무 등을 두루 썼으나 지금은 나무를 많이 쓰는데 나무 중에서도 오동나무가 그 으뜸이고 미루나무를 사용하기도 한다.

장구통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약57cm 정도 (1척 8촌 8리)인데 그 중에서 가는 허리의 길이는 약 23cm정도이며 가는 허리의 지름은 약 6.7cm(2촌2푼) 정도이고 세요의 둘레는 약22cm(7촌 2푼) 정도이며 주홍색이나 검정색을 칠리한다. 통에는 북편과 채편이 있는데 북편의 가죽은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사용하며 그 소리는 낮고 채편은 말가죽이나 개가죽을 사용하며 그 소리는 북편보다 높다. 북편과 채편의 가죽은 원철이라는 둥그런 쇠, 즉 철재를 사용하며 가죽을 부착하는데 북편의 원철이 채편의 원철보다 약간 크다.<sup>12)</sup>

또 북편의 고면<sup>13)</sup>의 직경은 약 18cm이고 채편<sup>14)</sup>의 직경은 약 17cm정도이나 음을 조절하기 위하여 진홍사(붉은 쇠고리)에 끼워 조임줄(축승)을 8개 고리(구철)에 끼워 조임줄을 V자 모양으로 북편과 채편(각각 8개의 구철)을 엮고 조이개(축수, 또는 부전)를 채편 쪽으로 죄이면 음이 높아지고 북편 쪽으로 풀면 음은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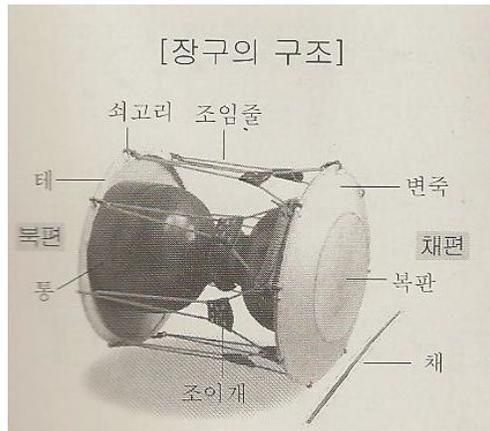
북편의 음은 대략 임중(임중 : B♭)정도의 높이면 연주하는데 무리가 없다. 즉

12) 북편 직경 - 약 50cm , 채편직경- 약41cm

13) 고면-소리 나는 부분

14) 채편의 소리 나는 부분

장구는 팀파니처럼 음을 완벽하게 조율 할 수는 없어도 음악을 연주하기 적당하게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일 수도 있다.



[그림 1] 장구의 구조

장구를 연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주 자세와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제일 먼저 장구 놓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구를 적당한 거리에 두고 쳐야 한다. 거리는 허리를 편 상태에서 양 팔이 자연스럽게 펴져 있는 거리이다. 장구의 위치는 장구를 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단용 장구를 위한 외장구의 위치와 풍물굿용 장구를 위한 양장구의 위치가 있다. 풍물굿용 장구를 치기 위해서는 양장구의 위치에 장구를 놓아야 한다. 양장구라고 하는 것은 궁채로 궁편도 치고 채편도 칠 수 있도록 채를 잡고 치는 것을 말한다. 양장구를 치기 위해서는 궁채를 왼 손이 궁편도 치기 쉽고 채편도 치기 쉬운 위치에 장구를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구의 조롱목이 궁편 왼 손이 어깨 부위와 나란히 놓아야 한다. 장구를 너무 몸 쪽으로 당기면 연주하는 팔이 좁아져 웅색한 모습이 되기 쉽다. 양팔이 시원스럽게 펴

져 있을 거리까지 장구를 밀어 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장구가 너무 멀지 않은가 할 정도의 거리이다. 장구를 멀리 두고 허리를 펴서 호흡에 의해 장구에 다가가서 장구를 연주해야 하는 것이다. 즉 장구를 내게 당겨 오게 하지 말고 내가 장구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장구 잡는 법은 다음과 같다. 장구를 연주하게 되면 궁편과 채편이 동그란 원형이기 때문에 잘 굴러가 버리거나 흔들리기가 쉽다. 그래서 장구를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어야 하는데 그 용도에는 발을 이용해야 한다. 오른발로 채편 변죽을 눌러주고 왼발로는 오른발과 같이 변죽 안쪽 부분을 잡아 주든지 숫바 사이로 넣어서 조이개(부전)를 왼발 옆 등으로 눌러 주든지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어느 악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구를 칠 때에도 기본 원칙은 적용된다. 즉 긴장을 풀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쳐야한다.

양쪽 무릎이 장구의 북편과 채편사이에 들어가도록 앉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sup>15)</sup> 약간 비스듬히 장구를 놓거나 앞에 놓으면 된다. 준비 자세는 장구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양장구 치는 위치에 두고 양발로 장구를 잡는다. 궁채를 쥔 팔을 자연스럽게 펴서 궁편 테 위에 놓고 채편을 쥔 손도 자연스럽게 펴서 ‘따’를 친 상태를 유지하고 허리는 펴고 정면을 바라보면 된다.

궁채 쥐는 방법으로는 궁채를 쥐는 손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에 궁채의 손잡이 윗부분을 넣어 잡고 손잡이 아랫부분은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오게 하여 전체적인 모양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모습을 한다. 손잡이 아랫부분을 대개 손가락 첫째 마디나 손톱 위에 오도록 하여 잡고 그 잡은 공간에 달걀 한 개 크기 정도의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열채 쥐는 방법으로는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와 집게손가락 손바닥에서 첫째마디로 열채 손잡이 부분을 잡는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손잡이 부분을 가볍게

---

15) 장구가 작거나 몸이 크거나 할 때

친다.

맨손타법은 팔은 곧게 펴지 말고 ‘ㄴ’자 형태가 되도록 한다. 손은 손가락을 모두 펴서 모지는 북편 윗쪽으로 가게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북편을 친다. 다른 손바닥을 붙여서 북편에 대고 친다. 북편의 팔은 가슴 높이 까지 올렸다가 치기도 하고 엄지는 대고 다른 손가락으로 치기도 한다. 즉 음의 길이가 긴 장단을 칠 경우에는 팔을 올렸다 치고 음의 길이가 짧은 장단은 엄지는 북편 윗부분에 대고 다른 손가락으로만 친다. 이때 손가락 끝 부분이 북편의 가운데 부분을 쳐야한다. 이것은 음악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친다. 이러한 동작은 궁구리채를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이다. 엄지를 북편의 윗부분에 얹고 치는 방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식지나 장지만을 상용하는 경우도 있다.

장구를 치는 부분도 북편과 채편의 연주로 나누어지는데 북편은 농악에서 궁구리채<sup>16)</sup>를 가지고 친다. 이는 무용이나 사물놀이에서도 같다. 합주나 중주, 독주, 독창의 반주에서는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친다.

채편의 연주로는 변죽을 칠 때와 북편을 칠때가 있다. 현악기 중심의 관현합주, 세악독주, 독창, 가곡반주 등의 반주, 즉 비교적 음량이 적은 음악을 연주할 때는 변죽(채편의 가장자리)을 친다. 관현합주, 농악, 무악, 사물놀이 등에서는 북편을 친다.<sup>17)</sup>

변죽을 칠 경우에는 채를 가볍게 쥐고 모지와 식지로 채를 누르듯이 잡고 장지 무명지 소지는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친다. 북편을 칠 경우에는 채편이 북편 중앙에 닿아야 하고 변죽을 칠 경우에는 변죽의 중앙을 치도록 해야 한다. 장구를 칠 때 거칠은 소리가 나거나 톼의 둘레를 쳐서 나무소리가 나거나 원철을 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장구소리는 청량한 소리가 나야 하기 때문이다. 즉 북편

16) 대나무 뿌리에 동그랗게 깎은 박달나무를 꽃아서 만든 것

17) 장구채의 크기: 약 42cm정도로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다.

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쳐야한다.



[그림 2] 장구 치는 방법

장구를 칠 때 속도가 빠른 음악에서는 손을 올리지 않고 박자에 맞추어 장구를 치지만 아주 느린 음악에서는 합장단을 칠 때 채편을 먼저 치고 나중에 북편을 치는데 이것을 ‘갈라치기’라고 한다. 이때 북편을 칠 때 북(쇠고)도 친다. ‘갈라치기’ 할 때의 구음은 ‘기덕 쿵’ 이라 한다.

장구의 연주법에는 합장단(雙:쌍), 북(鼓: 고), 채편(鞭:편), 굴림채(搖: 요)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합장단은 북편과 채편을 함께 치는 장단으로 “⓪”로 표기 하며 “덩” 또는 “땡”이라고 하고, 북편을 왼손으로 치는 주법을 “○”로 표기 하고 “궁” 또는 “쿵”이라고 한다. 채편의 “J”연주로 “l”로 표기하며 “덕” 또는 “떡”으로 구음 한다. 구음별 장구의 주법을 살펴보면 다음<표 2>와 같다.

<표 2> 장구 구음표

부호	명칭	구음	연주법
①	합장단	뎡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친다.
○	북편	쿵	손으로 북편을 친다.
	채편	덕	장구채로 채편을 친다.
∴	채굴림	더러러	장구채로 채편을 굴린다.
i	겹채	기덕	장구채로 채편을 겹친다.

뎡(뎡) “ ① ”의 연주법으로는 오른손 채와 왼손을 가슴높이까지 들어 올려 호선을 그으며 내리는 동시에 친다. 속도가 빠른 음악에서는 손을 올리지 않고 치며 대개 장단의 첫 박에 사용한다. 또한 아주 느린 장단에서는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지 않고 “기덕 쿵”으로 채편을 제1박으로 북편을 제2박으로 나누어 속도 조절한다.

덕(떡) “ | ”는 채를 모지와 식지 사이에 끼고 장지·무명지·소지로 채를 잡고 치는 주법이다. 열채를 든 손은 손등이 밖으로 먼저 나가 겨드랑이가 들려져서 나온 팔 전체의 모습이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칠 때는 손목 안쪽이 먼저 들어와 채편과 변죽이 꺾여지는 데를 밀어서 쳐주어야 한다. 쳤을 때는 열채 끝이 채편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열채중간은 채편과 변죽이 꺾여지는 곳에 붙어 있어야 한다. ‘따’도 마찬가지로 호흡에 의해 쳐야하며 전체적인 모습이 부드러운 곡선이 되어야 한다.

쿵(궁) “ ○ ”은 왼손바닥으로 장구의 북편을 치는 주법이다. 음악의 속도에 따라

손을 들어 치거나 손을 얹고 치거나 한다. 궁채를 사용 하였을 때는 궁채를 든 손은 손목의 힘을 빼고 그 빠진 상태에서 팔을 펴서 들어야 한다. 그리고 호흡에 의해 든 손은 가장 윗부분에서 팔을 감아서 다시 펴는 동작에서 궁편을 친다. ‘궁’치는 동작이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해야하고 손을 올릴 때는 항아리를 안아 올리듯한 모습이어야 한다. 넘겨서 치는 것도 같이 ‘궁’으로 표현한다. ‘쿵’으로 표현하여 ‘궁’과 구별하여 쓰기도 한다. ‘궁’을 넘겨서 채편을 칠 때는 가급적 숫바(줄)에 붙여서 넘기고 다시 궁채를 궁편에 넘겨 올 때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반원을 그리면서 넘어온다.

더러러 “ ∷ ”는 장구채의 굴러서 내는 채 굴림 이다. 초보자는 제대로 연주하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기덕은 “떡” 앞에 장식음이 붙은 주법이다. 모지와 식지로 “더”를 가볍게 빨리 친 다음 재빨리 손을 오므려서 “떡”을 치면 된다. 순간적으로 이완된 근육을 긴장시키는 연습이 필요한 주법이다.

더 “·” 장구 채 끝으로 채편을 약하게 찍어 주는 주법으로 주로 약박에 사용된다.<sup>18)</sup>

## 2. 단소(短簫) 특징

단소는 국악기 중에서도 악기의 구조가 가장 간편하고 소리내기가 쉬우며,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널리 불리어지고 있는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단소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통소와 함께 고려시대 이전부터 민간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또한 향(鄕)피리나 아쟁(牙箏)과 함께 민간의 풍류음악 연주에 알맞도록 음계가 만들어진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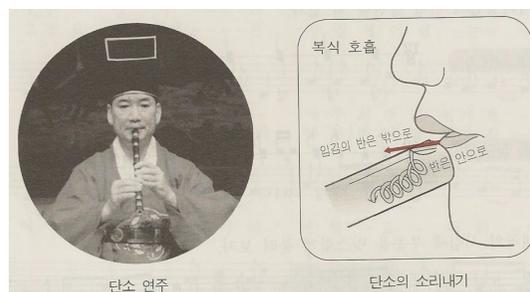
18) 윤명원. 『국악교육논총』. 서울 : 국악춘추사(2004), pp.210~216

로 보아 조선조(朝鮮朝)말에 현재와 같은 악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음역(音域)은 약 두 옥타브 반에 이르며, 음색이 비슷한 상황이나 양금 또는 해금과도 조화를 잘 이루어 2중주 혹은 3중주로도 연주된다. 특히 단소는 악기가 작아서 휴대하기가 간편하며 음색이 맑고 청아(清雅)해서 독주악기로도 널리 사용된다. 또한 실내악이나 줄풍류 연주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가곡이나 시조반주에도 사용이 된다.<sup>19)</sup>

단소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소리내기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소리내기는 단소의 특성상 그리 쉽지는 않지만 너무 어려워서 소리를 내기 힘든 것도 아니다. 소리내기는 입술 모양이 중요한데 그 모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나타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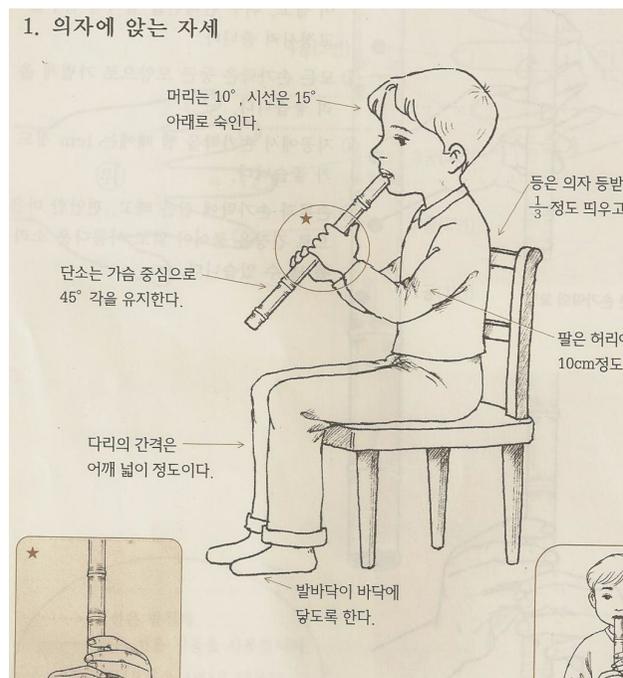
입술 모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랫입술을 완전히 피는 것이다. 아랫입술이 펴지지 않으면 제대로 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랫입술을 펴지 않으면 취구가 막혀 더 이상 김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위와 같은 입술 모양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자세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김의 세기에 관한 문제이다.



[그림 3] 입술모양

19) 조성례, 『초보자를 위한 단소교본』 (서울:한소리국악원, 1999), p4

앞에서 본 자세는 시선이 너무 아래를 향해도 안되고 너무 위를 향해도 안된다. 팔은 자연스럽게 양쪽 겨드랑이에 붙이게 하는 것이 좋다. 옆에서 본 자세는 아래와 같은 것이 가장 좋다. 너무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똑바로 펴지 않은 자세는 올바른 소리를 내기 어렵다. 자세에서는 시선의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시선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위의 자세를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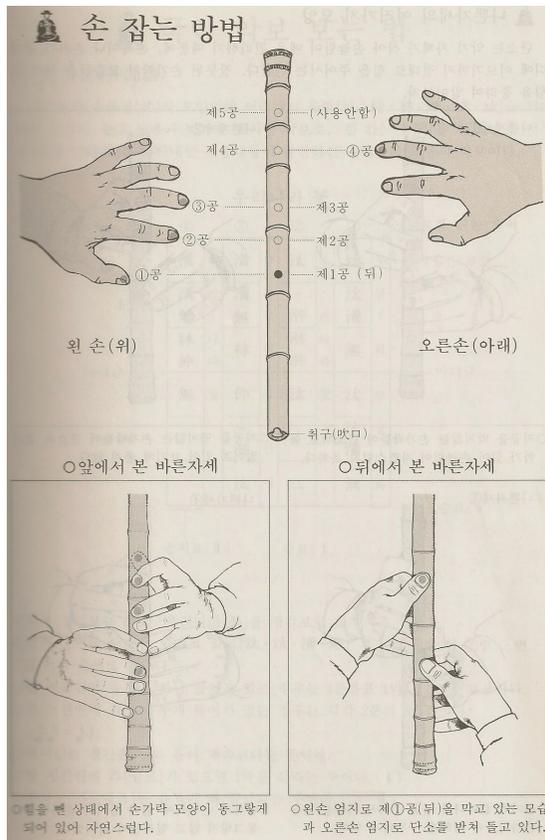


[그림 4] 단소 부는 자세

단소를 잡는 방법은 힘을 뺀 상태에서 손가락 모양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단소를 잡으면 된다.

20) 안수영, 『초급편 단소』 (서울:현대음악출판사 2002), p14 참조

단소의 제 1지공은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제2지공은 왼손의 검지손가락으로, 제3지공은 왼손의 장지손가락으로 막는다. 제4지공은 오른손의 장지손가락으로 막고 제5지공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 왼손의 엄지와 오른손의 엄지는 단소 뒤 보내서 단소를 받쳐 들어야 한다.<sup>21)</sup>



[그림 5] 손 잡는 방법

21) 조성례, 『초보자를 위한 단소교본』 (서울:한소리국악원, 1999), p14

국악에서도 서양음악과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내에 모두 12음정을 가지고 있으며 음과 음사이가 반음(半音)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악에서는 주음(主音 : 으뜸음)을 황종(黃鐘)으로 삼으면, 이 음은 서양음악의 내림 마(E $\flat$ )에 가까운 음이다

단소의 경우 악기의 구조상 12음 가운데서 주요5음만을 사용한다. 黃鐘(황종)은 ‘黃’로, 太주는 ‘太’로, 仲呂(중려)는 ‘仲’로, 林鐘(임종)은 ‘林’로, 無역(무역)은 ‘無’로, 潢鐘(황종)은 ‘潢’로 표기한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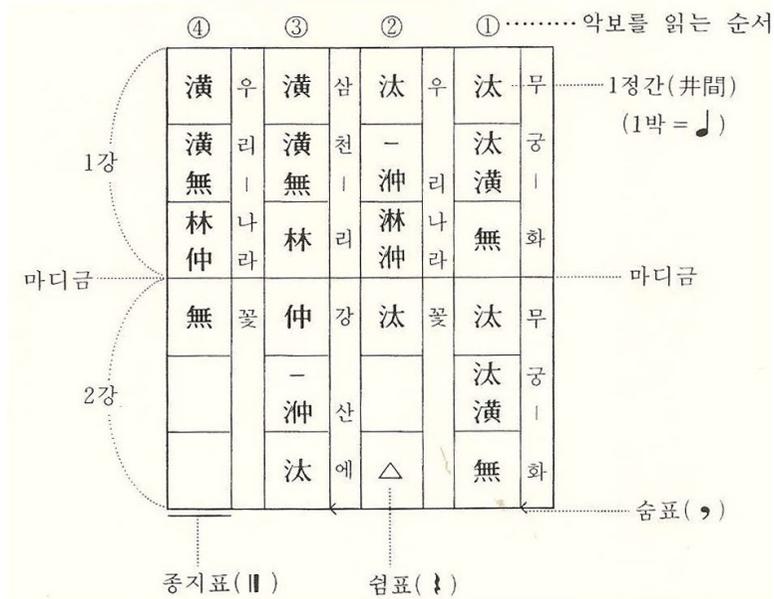


[그림 6] 단소 음역과 운지법

단소 연주를 하기 위해서 단소연주를 위한 악보가 있는데 이를 정간보라고 한다. 우물정(井)자 모양안에 여러 개의 음명 [예: 仲 · 林 · 無 · 黃 · 汰] 을 적어 넣어 음정의 높고 낮음과 박자를 표시한 악보로, 한 칸 [一井間] 을 한 박으로 쳐서 음의 시가(時價)를 나타내는 세종대왕이 창안하신 우리나라 고유의 악보이다.

정간보 보는 법은 다음과 같다.

22) 조성례, 『초보자를 위한 단소교본』 (서울:한소리국악원, 1999), p16 참조



[악보 1] 우리나라 꽃

- (1) 위의 정간보는 동요「우리나라 꽃」을 정간보로 옮겨 적은 것이다.
- (2) 먼저 ①번줄 위에서 아래로 읽고(汰 ·汰 ·潢 · 無) 그 다음에 ①번 ②번 ③번 ④번의 순서로 읽는다.
- (3) 한 정간안에 음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는 4분음표 1박(♩)으로 계산한다.
- (4) 한 정간안에 음정이 두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각각 2분의 1박씩이다.<sup>23)</sup>
- (5) 비어있는 정간은 위의 음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 (6) 한 정간안에 △(쉽표)가 있으면 1박을 쉬라는 뜻이다.
- (7) 종지표(가로덧금)는 음악이 다 끝났다는 뜻이다<sup>24)</sup>.

정간보의 악상 기호와 장식음 및 부호는 부록으로 첨부 하도록 하겠다.

23) ♩ ♩ = ♩

24) 조성례, 『초보자를 위한 단소교본』 (서울:한소리국악원, 1999), p15 참조

## 제3장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국악기 분석

### 1. 교학사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교학사에서 출판된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기악’ 관련 내용은 네 가지이다. 즉 10쪽의 장구, 14쪽의 큰북·작은북·탬버린·실로폰과 같은 타악기, 18쪽의 현악기인 기타, 그리고 26쪽에 명시된 단소이다. 이 중 국악기와 관련된 내용은 장구, 단소의 두 종류이며 <표 3>과 같다.

<표 3> 교학사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국악기	구성 내용	
장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구설명</li><li>• 장구 장단의 부호</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구의 각부 명칭</li><li>• 민속악 장단</li></ul>
단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소 설명</li><li>• 연주 자세 설명</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운지법</li><li>• 연주법 설명</li></ul>

#### 가. 장구

장구의 구성 내용은 장구 설명, 장구의 각부의 명칭, 장구 장단의 부호, 민속악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구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궁궐채의 쓰임새와 북판과 변죽을 언제 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비교적 구체적이었으며, 장구의 각부 명칭에서는 악기 사진에 각부 명칭을 달아 놓았다. 장구 장단의 부호 부분에서는 부호, 명칭, 구음, 연주법, 음표를 도표화하여 수록했다.<sup>25)</sup>

## 나. 단소

단소의 구성내용은 단소 설명, 운지법, 연주 자세사진, 연주법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소 설명, 연주법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운지법 옆에 단소 연주 자세 사진을 수록하여 운지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였다. 운지법에서 5지공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사용토록 제시되어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중, 임, 무, 황, 태의 음계만 제시되어 있는 반면 중, 임, 남, 황, 태, 협의 음계가 제시되어 있으며, 솔, 라, 시, 도, 레, 미, 파의 악보로 역보 하였다. 실음과 함께 두 가지의 악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남려의 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지법에 반규법을 제시하였다.<sup>26)</sup>

## 2. 동진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동진 음악 출판사의 음악 교과서에서 수록된 ‘기악’ 관련 내용은 여섯 가지이다. 즉 15쪽의 리코더, 20쪽의 장구, 21쪽의 단소와 22쪽의 단모리 장단, 23쪽의 정간보와 44쪽에 명시된 하모니카이다. 이 중 국악기 관련된 내용은 장구, 단소, 정간보 단모리 장단의 네 종류로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동진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국악기	구성 내용
장구	• 장구의 구조 • 장구 장단의 부호 (부호, 악보, 구음, 주법) • 학습활동 - 세마치장단
단소	• 운지법 • 학습활동 - 도라지 타령 악보 4마디

25) 조창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교학연구사(2002), p10

26) 위의 책, p26

국악기	구성 내용
단모리 장단	• 기본 장단 • 변형장단
정간보	• 정간보 설명 • 박의길이 • 아리랑(정간보 악보)

### 가. 장구

장구의 구성내용은 경기민요 ‘도라지타령’ 제재곡 아래 부분에 장구의 구조, 장구 장단의 부호와 ‘학습활동’ 부분의 세마치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구의 구조는 악기 사진에 악기 명칭들을 자세히 명시 되어 있다. 장구 장단의 부호는 악보, 부호, 구음, 주법을 도표화하여 보여주고 있으나, 부호 명칭이 빠져있다.

‘도라지 타령’ 제재곡의 학습활동에 나온 세마치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은 서양음표와 구음이 표시되어 있다.<sup>27)</sup>

### 나. 단소

단소의 구성내용은 운지법과 ‘학습활동’의 ‘도라지 타령’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단소 취구를 위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 동진 음악 교과서에 서만 단소 취구가 아래로 향해 있다.

운지법에서 5지공은 새끼손가락을 사용하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중, 임, 무, 황, 태의 음역만 악보로 역보 하였다.

제재곡 ‘도라지 타령’의 학습활동 부분에 ‘도라지 타령’ 악보 4마다가 수록되어 있다.<sup>28)</sup>

27) 김준수 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동진음악출판사(2002), p20

28) 위의 책, p21

#### 다. 단모리 장단

단모리 장단 구성은 민요 ‘옹헤야’ 제재곡 아랫부분에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이 표시되어 있다. 기본 장단은 음표와 부호 구음이 같이 표시되었으나 변형 장단은 부호와 구음만 표시되어 세 가지의 장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습활동’ 부분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서양악보로 보여주고 있다.<sup>29)</sup>

#### 라. 정간보

정간보 부분은 정간보의 박의 길이와 간략한 설명이 되어있고 ‘아리랑’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sup>30)</sup>

### 3. 두산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두산 출판사의 음악 교과서에서 수록된 ‘기악’ 관련 내용은 16쪽의 기악(장구), 22쪽의 기악(리코더)와 36쪽에 명시된 기악(단소)이다. 이 중 국악기 관련된 내용은 장구, 단소의 두 종류로 <표 5>와 같다.

<표 5> 두산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국악기	구성 내용
기악(장구)	• 장구설명 • 장구 장단의 부호(부호, 양악보, 구음, 뜻) • 장구의 구조 • 콩세야 팔새야(단모리장단) • 임금님의 행차(취타 장단)
기악(단소)	• 연주법 설명 • 연주 자세 사진(입모양) • 운지법

29) 앞의 책, p22

30) 앞의 책, p23

#### 가. 기악(장구)

기악 (장구)의 구성내용은 장구 설명, 장구 장단의 부호, 장구의 구조, 콩새야 팔새야(단모리장단), 임금님의 행차(취타 장단)로 이루어져 있다.

장구 설명 내용은 ‘북편과 채편을 쳐서 소리 내는 악기이므로 왼손과 오른손 채를 알맞게 움직여 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 는 설명이 나와 있다. 장구 장단의 부호 부분은 양악보, 부호, 구음, 뜻으로 도표화되어 있다.<sup>31)</sup>

#### 나. 기악(단소)

단소의 구성 내용은 연주법 설명, 연주 자세 사진, 운지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주 자세 사진으로는 입술에 취구를 대는 방법과 취구에 입술을 대는 방법, 취구에 입김을 모아 넣는 방법 세 가지 그림으로 입술 모양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운지법에서 기본음인 황, 태, 중, 임, 무를 악보로 역보하고 운지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정간보의 기보법을 알기 쉽게 서양음표와 같이 보여 주었다.

연주법 설명 내용은 연주 자세 및 소리내기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오른쪽에 단소 각 부분의 명칭을 설명 하였으며 5지공은 쓰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sup>32)</sup>

### 4. 성안당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성안당 출판사의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기악’ 관련된 내용은 일곱 가지이다. 즉 10쪽의 장구 연주하기, 14쪽의 전통 현악기, 26쪽의 리코더 연주하기, 37쪽의 목관 악기, 현악기, 금관 악기, 타악기의 관현악에 쓰는 악기, 51쪽의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이고, 54쪽의 단소 연주하기와 65쪽에 명시된 기타 코드표이다. 이 중 국악기 관련된 내용은 장구 연주하기와 전통 현악기,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단소 연주하기

31) 이흥수 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주)두산, p16

32) 앞의 책, p36

의 네 종류로 <표 6>과 같다.

<표 6> 성안당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국악기	구성 내용
장구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구 설명 • 장구의 구조</li> <li>• 장구의 장단 부호(부호, 명칭, 구음, 연주방법, 양악보)</li> <li>• 학습활동 - 굿거리장단</li> </ul>
전통 현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야금 설명 및 사진 • 거문고 설명 및 사진</li> <li>• 해금 설명 및 사진 • 아쟁 사진 • 양금 사진</li> </ul>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물놀이 설명 • 사물놀이 설명 • 보충악곡 - 삼채</li> </ul>
단소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법 설명 • 운지법</li> <li>• 학습활동 - 밀양 아리랑(정간보 악보)</li> </ul>

#### 가. 장구

장구 연주하기의 구성 내용은 굿거리장단인 ‘산도깨비’ 제재곡 아래 부분에 장구 설명, 장구의 구조, 장구의 장단 부호와 ‘학습활동’의 굿거리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구 설명은 간략히 하고 있다. 장구의 장단 부호는 부호, 명칭, 구음, 연주방법, 양악보 표로 제시하였다.

‘학습활동’에는 ‘산도깨비’의 장단인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이 수록 되어 있어 장구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였다.<sup>33)</sup>

33) 최필립 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성안당,(2001), p10

#### 나. 전통 현악기

‘전통 현악기’의 구성 내용은 가야금, 거문고, 해금, 양금, 아쟁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가야금, 거문고, 해금은 악기의 설명과 유래와 연주법 등을 소개했다.

사진 상단에는 국립국악원 홈페이지([www.ncktapa.go.kr](http://www.ncktapa.go.kr))주소를 제시하여 여러 가지의 악기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sup>34)</sup>

#### 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구성 내용은 풍물놀이 설명, 사물놀이 설명, 보충악곡으로 삼채가락이 수록되어 있다.

보충악곡으로는 삼채 악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삼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sup>35)</sup>

#### 라. 단소 연주하기

단소 연주하기 구성 내용은 ‘밀양 아리랑’ 제재곡 아래 부분에 연주법 설명, 운지법과 학습활동의 ‘밀양 아리랑’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주법 설명은 입김을 부는 순서를 네 단계로 설명하고 아래 부분에 운지법을 제시하였다.

운지법에 5지공은 약지손가락을 사용토록 하였고, 음역은 교학사와 같이 중, 임, 남, 무, 황, 태, 협의 음역을 , 솔, 라, 시, 도, 레, 미, 파의 악보로 역보 하여, 실음과 함께 두가지의 악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려의 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지법에 반규법이 제시되어 있다. <sup>36)</sup>

### 5. 세광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

34) 위의 책, p14

35) 위의 책, p51

36) 위의 책, p54

세광에서 출판된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기악’ 관련된 내용은 아홉 가지이다. 즉 13쪽의 리코더 연주법, 16쪽의 장구 연주법, 25쪽의 단소 연주법, 42쪽의 해금/바이올린과 46쪽의 썩과리 연주법, 52쪽의 동·서양의 현악기, 66쪽의 반주하기, 78쪽의 관현악단의 배치, 79쪽에 명시된 목관악기와 금관악기이다. 이 중 국악기와 관련된 내용은 장구 연주법, 단소 연주법, 해금/바이올린, 썩과리 연주법, 동·서양의 현악기 다섯 가지로 <표 7>과 같다.

<표 7> 세광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국악기	구성 내용
장구 연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구 설명 • 장구의 구조 • 연주 자세 사진</li> <li>• 장구 장단의 부호(부호, 구음, 연주방법, 표기)</li> <li>• 학습활동 - 세마치장단</li> </ul>
단소 연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지법 • 정간보 설명 및 아리랑 악보 • 연주 자세 사진</li> </ul>
해금 / 바이올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금과 바이올린 설명</li> <li>• 바이올린-사랑의 인사: 악보 및 연주 자세 사진</li> <li>• 해금-산조(진양) : 악보 및 연주 자세 사진</li> </ul>
썩과리 연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썩과리 설명 • 연주 자세 사진</li> <li>• 굿거리장단, 삼채가락</li> </ul>
동·서양의 현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색과 역할 닮은 동·서양의 현악기 사진 수록</li> </ul>

#### 가. 장구 연주법

장구 연주법의 구성 내용은 ‘아리랑’ 제재곡 아래에 장구 설명, 장구의 구조, 연주 자세 사진, 장구 장단의 부호와 ‘학습활동’의 세마치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구 설명에서는 북편, 채편의 소리, 조이개의 역할 등을 설명하였다.

장구의 구조 부분은 장구에 대한 명칭만이 소개되었다. 아래 부분에는 ‘북편 치는 모습’, ‘채편 치는 모습’, ‘채 쥐는 모습,’ ‘변죽 치는 모습’의 사진을 한 부분씩 보여 주었다.

장구 장단의 부호에서는 부호, 구음, 연주 방법, 서양음악표기로 도표화되어 있다.<sup>37)</sup>

#### 나. 단소

단소 주법의 구성내용은 운지법, 정간보 설명 및 밀양 아리랑 악보, 연주 자세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간보 설명은 정간보 악보에 대해 이해하고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의 설명을 하였다.

운지법 부분은 단소 부는 앞모습을 사진으로 수록하였고, 단소의 그림 왼쪽에 중, 임, 무, 황, 태의 음공 막아지는 운지법을 보여주고 있다. 중, 임, 무, 황, 태의 음역에 악보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5지공을 오른손 무명지로 막으라는 운지법은 세광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다.

연습곡으로는 ‘밀양 아리랑’곡의 정간보를 수록하였다.<sup>38)</sup>

#### 다. 해금/바이올린

해금과 바이올린은 각각 공통점을 설명하고 연주 사진을 담아 바이올린 독주곡 ‘사랑의 인사’와 해금 독주곡 ‘해금 산조’ <진양>의 악보를 수록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바이올린과 해금의 연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9)</sup>

37) 고춘선 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세광음악출판사(2002), p16

38) 위의 책, p25

39) 위의 책, p42

#### 라. 팽과리 연주법

팽과리 연주법은 팽과리 소개, 연주법과 연습곡 굿거리장단과 삼채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팽과리의 간단한 역할 설명과 연주법 설명이 사진과 함께 수록되어 설명하였고 연습곡으로 굿거리장단과 삼채가락이 서양음표로 표기 되어져 있다.<sup>40)</sup>

#### 마. 동·서양의 현악기

동·서양의 현악기 부분에서는 바이올린과 해금, 첼로와 아쟁, 하프와 소공후,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거문고, 양금, 가야금의 사진을 수록했다. 서양악기와 동양악기의 비슷한 악기 끼리 소분류 하였다.<sup>41)</sup>

### 6. 아침나라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아침나라 출판사의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기악’ 관련된 내용은 다섯 가지이다. 즉 8쪽의 ‘장구에 대해 알아보시다.’와 17쪽의 소프라노 리코더 주법을 알아보시다.’ 26쪽의 ‘단소로 소리를 내봅시다.’와 48쪽의 ‘단소의 운지법을 알아보시다.’ 이다. 이 중 국악기와 관련된 내용은 ‘장구에 대해 알아보시다. 장구를 쳐 봅시다. 단소로 소리를 내봅시다. 단소의 운지법을 알아보시다.’ 의 네 가지이며 <표 8>과 같다.

<표 8> 아침나라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국악기	구성 내용
장구에 대해 알아보시다.	• 장구의 구조 • 장구 주법(부호, 구음, 연주방법, 표기(음표))

40) 위의 책, p46

41) 앞의 책, p52

국악기	구성 내용
장구를 쳐 보시다.	• 학습활동 - 세마치장단 • 연주 자세 사진
단소로 소리를 내 보시다.	• 연주법 설명 • 그림 악보 • 연주 자세 사진
단소의 운지법을 알아봅시다.	• 운지법 • 학습활동 - 널리리야(정간보 악보)

가. ‘장구에 대해 알아보시다.’

‘장구에 대해 알아보시다.’ 구성내용은 ‘타령’ 제재곡 아래에 장구의 구조의 사진이 있고 장구 주법으로 부호, 구음, 연주방법, 표기(음표)로 도표화되어 있다. 악기 설명이 되어있지 않았다.<sup>42)</sup>

나. 장구를 쳐 보시다.

‘장구를 쳐 보시다.’의 구성내용은 ‘학습활동’의 세마치장단, 연주 자세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밀양아리랑’ 제재곡의 ‘학습활동’란에 ‘밀양아리랑’의 장단인 세마치장단이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가), (나)로 나누어 표시 되어 있다.

교과서의 연주 자세 사진은 정면, 복편, 복판, 변죽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sup>43)</sup>

다. 단소로 소리를 내 보시다.

‘단소로 소리를 내 보시다.’ 의 구성 내용은 연주법 설명, 그림악보, 연주 자세 사

42) 윤경미 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주)아침나라(2001), p8

43) 앞의 책, p17

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소 소리 내는 방법은 ‘옹헤야’ 제제곡 아래에 네 가지로 설명하였고 오른쪽에 연주자의 옆모습사진을 수록하였다.

‘학습활동’에서는 단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그림을 선의 굴곡 모양으로 수록한 그림악보를 제시하여 다른 교과서와 차이를 두었다.<sup>44)</sup>

라. 단소의 운지법을 알아봅시다.

‘단소의 운지법을 알아봅시다.’의 구성 내용은 ‘닐리리야’의 제제곡 아래에 운지법과 학습활동에서 ‘닐리리야’ 정간보를 연습곡으로 제시하였다.

운지법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음 중, 임, 무, 황, 태의 운지법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악보로는 표기하지 않았다. 지공을 살펴보면 5지공은 막는 손가락이 제시되지 않았다. 학습활동’에서는 정간보로 된 ‘닐리리야’를 단소 연습곡으로 실었다.<sup>45)</sup>

아침나라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장구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단소 내용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7. 지학사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지학사에서 출판된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기악’ 관련 내용은 열두 가지이다. 즉 10쪽의 연주 계획표 만들기, 13쪽의 팽과리 구음, 30쪽의 단소 연주하기, 31쪽의 장구 연주하기, 34쪽의 리코더 연주하기, 35쪽의 악기 배치와 연주, 39쪽의 장구의 반주 방법과 47쪽의 당김음과 장단치기, 53쪽의 풍물놀이 장단 익히기, 61쪽의 그림악보 연주하기, 63쪽의 소금 연주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에 명시된 여러 가지 타악기 연주하기이다. 이 중 국악기 내용은 팽과리 구음, 단소 연주하기, 장구 연주

---

44) 앞의 책, p32

45) 앞의 책, p48

하기, 장구의 반주 방법, 당김음과 장단치기, 풍물놀이 장단 익히기, 소금 연주법의 일곱 가지로 <표 9>와 같다.

<표 9> 지학사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국악기	구성 내용
팽과리 구음	• 8/12박자 리듬의 팽과리 구음
단소 연주하기	• 연주법 설명 • 운지법 • 연주 자세 사진 • 새야새야 (정간보 악보 및 설명)
장구 연주하기	• 연주 자세 사진 및 연주 자세 설명 • 장구 연주법(구분, 표기(부호와 음표), 구음, 연주법) • 장단 연습보
장구의 반주방법	• 장구 반주 방법 설명
당김음과 장단치기	• 당김음과 장단치기 설명
풍물놀이 장단익히기	• 삼채장단 • 풍물놀이 사물놀이 차이점 • 풍물놀이 사물놀이 연주 자세 사진
소금 연주법	• 운지법 • 연습곡 수록 • 연주 자세 사진

#### 가. 팽과리 구음

팽과리 구음 부분은 ‘봄’ 제재곡의 학습활동에 12/8박자의 두 가지 구음이 제시되어 있고 구음의 설명이 있다.<sup>46)</sup>

46) 윤명원 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주)지학사(2001), p13

#### 나. 단소 연주하기

단소 연주하기 구성 내용은 연주법 설명, 운지법, 연주 자세 사진, ‘새야새야’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주법 설명은 세 단계로 정면과 옆모습의 연주 자세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단소 운지법은 기본음 중, 임, 무, 황, 태의 운지법을 보여주며 악보로 보여주었고 5지공의 운지는 제시되지 않았다.<sup>47)</sup>

#### 다. 장구 연주하기

장구 연주하기 구성 내용은 학습목표 ‘여러 가지 음악의 반주 악기 및 독주 악기로 널리 쓰이는 장구를 직접 배워서 연주해 본다.’의 내용에 맞게 장구 연주자세의 설명과 장구 연주법을 표로 나타내어 자세하게 설명 하였다. 오른손 주법, 왼손 주법, 양손주법으로 나누어서 구음과 양악보로 표기 하였고 연주법을 설명하였다. 장단 연습보를 정간보에 구음으로 제시 하였다.<sup>48)</sup>

#### 라. 장구의 반주 방법

장구를 반주할 때에는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골고루 섞어 연주하고 노래에 비해 음량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메기는 소리를 부를 때는 장구 채편의 변죽을 치고, 받는 소리를 부를 때는 복판을 친다.<sup>49)</sup>

#### 마. 당김음과 장단치기

당김음이 있는 가락에서는 리듬의 강약 변화를 잘 살려서 연주해야 한다. 당김음

---

47) 앞의 책, p30

48) 앞의 책, p31

49) 앞의 책, p39

이 있는 가락의 장구 반주는 학습활동 1번에 나와 있는 변형장단을 연주 한다.<sup>50)</sup>

#### 바. 풍물놀이 장단 익히기

풍물놀이 장단 익히기 구성 내용은 삼채 장단,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차이점, 연주자세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채 장단은 성안당에서 출판된 음악 교과서처럼 삼채에 대한 설명은 없이 정간보로 삼채장단이 수록되어 있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차이점을 표로 설명하였고, 그 아래는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연주 모습 사진을 첨부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차이점을 더욱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sup>51)</sup>

#### 사. 소금연주법

소금 연주법은 제재곡 ‘너영나영’의 학습활동 부분에 운지법과 연습곡 연주 자세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임, 남, 무, 황, 태, 고, 중의 운지법을 보여주며, 음역에 맞는 악보로 역보 하였다. 하지만 1, 3지공은 같은 손가락인 검지와 식지로 운지 하라는 오류가 있었다. 따라서 1지공-식지, 2지공-장지, 3지공-무명지, 4지공-식지, 5지공-장지, 6지공-무명지로 수정하여야 한다.<sup>52)</sup>

### 8. 천재교육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기악’ 관련 내용은 여섯 가지이다. 즉 11쪽의 피아노, 18쪽의 장구, 19쪽의 단소와 소금, 34쪽의 리코더와 43쪽에 명시된 기타 이다. 이 중 국악기와 관련된 내용은 장구, 단소, 소금 세 가지이며 <표 10>과 같다.

---

50) 앞의 책, p47

51) 앞의 책, p53

52) 앞의 책, p63

<표 10> 천재교육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국악기	구성 내용
장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구 설명 • 장구 모양과 각 부분의 명칭</li> <li>• 장구 부호와 구음 및 연주 방법 (이름, 양악보, 구음, 부호, 연주 방법)</li> <li>• 연주 자세 사진</li> </ul>
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지법 • 연주 자세 사진</li> </ul>
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금 각 부분의 명칭 • 운지법 • 연주 자세 사진</li> </ul>

가. 장구

장구의 구성 내용은 장구 설명, 장구 모양과 각 부분의 명칭, 장구 부호와 구음 및 연주 방법, 연주 자세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구 설명은 장구의 유래와 장구의 역할을 설명하다. 장구의 부호와 구음 및 연주 방법은 부호, 이름, 구음, 양악보, 연주방법을 도표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장구의 연주 자세는 채 권 모습, 채편 모습, 북편 모습, 변죽 치는 모습, 앞모습의 사진을 수록하여 학습자의 연주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였다.<sup>53)</sup>

나. 단소

단소의 구성 내용은 운지법, 연주 자세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지법에서는 고, 중, 임, 남, 무, 황, 태의 악보는 제시하지 않고 음역만 제시하였다. 교학사와 성안당 교과서와 같이 운지법에서 반규법을 제시하였으며, 5지공을 오른손 약지로 막도록 제시하였다. 연주 자세는 앞모습, 옆모습 사진을 연주 자세와 같이 수록했으나 단소 설명과 연주법 설명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sup>54)</sup>

53) 백병동 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주)천재교육(2001), p18

#### 다. 소금

소금의 구성 내용은 각 부분의 명칭, 운지법 연주 자세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분의 명칭과 운지법에서는 입, 남, 무, 응, 황, 태, 협, 고 중의 악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한 운지법을 수록하였으며, 연주 자세 사진은 단소 연주사진과 함께 수록했다.<sup>55)</sup>

### 9. 도서출판 태성 음악 교과서 국악기 내용 구성

도서출판 태성에서 출판된 음악 교과서 수록된 ‘기악’ 관련 내용은 네 가지이다. 즉 12쪽의 장구 연주, 26쪽의 단소 연주 ‘새야새야’, 37쪽의 리코더 연주와 44쪽에 명시된 기타 연주이다. 이 중 국악기 관련된 내용은 장구연주, 단소연주 <새야새야> 두 가지이며 <표 11> 이다.

<표 11> 태성 음악 교과서 국악기 구성 내용

국악기	구성 내용
장구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구 설명 • 장구의 구조</li><li>• 장구 연주법(부호, 이름, 구음, 치는 방법, 음표)</li><li>• 민속악 장단</li></ul>
단소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소 설명 • 연주 자세 사진 • 운지법 • 연주법 설명</li><li>• 새야새야(정간보 악보와 오선보)</li></ul>

54) 위의 책, p19

55) 위의 책, p19

### 가. 장구 연주

장구 연주의 구성 내용은 장구 설명, 장구의 구조, 장구 연주법과 장단, 민속악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구 설명에서는 장구의 쓰임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장구 연주법은 부호, 이름, 치는 방법, 적기(음표)를 도표화 하여 보여주고, 연주법의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연습곡은 민속악 장단<sup>56)</sup>을 수록하며 서양음표 아래에 장구 부호를 적어 넣어 학습자의 이해를 도왔다.<sup>57)</sup>

### 나. 단소 연주

단소의 구성내용은 단소 설명, 연주 자세 사진, 연주법 설명, 운지법, ‘새야새야’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소 설명은 간략히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단소 연주 사진과 오른쪽에는 단소 소리 내는 방법을 입술모양의 구체적인 그림으로 수록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단소 소리내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연주법과 음역 부분은 연주법의 간략한 설명과 단소 음역을 설명하였다. 단소 운지법은 단소 그림과 함께 기본음인 중, 임, 무, 황, 태를 악보로 역보 하였고, 5지공의 운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단소 연습곡 ‘새야 새야’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왼쪽에는 정간보, 오른쪽에는 오선표로 제시되어 있고 연주 방법도 오선보 아래에 설명되어 있어 학습자가 익숙한 두 가지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게 하였고 단계적으로 연주하기 쉽게 3단계 단계별 악보를 수록 하였다.아래 부분에는 각 시김새의 설명이 표기되어 있다.<sup>58)</sup>

결론적으로, 중학교 9종 음악 교과서의 국악기 영역 중 공통적으로 모두 다루고

56) 세마치장단, 굿거리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 장단, 자진모리장단 이다.

57) 서한범 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도서출판 태성(2002), p12

58) 위의 책, p26

있는 악기는 장구와 단소로 두 가지이다. 그리고 그 외 국악기 관련된 내용은 단모리 장단, 정간보, 풍물놀이, 사물놀이, 해금, 당김음과 장단 치기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출판사별 국악기 내용 비교를 <표 12>로 나타낸 것이다.

<표 12> 출판사별 국악기 내용 비교<sup>59)</sup> (유사명칭통일)

구분	교학사	동진	두산	성안당	세광	아침나라	지학사	천재교육	태성
공통	장구	장구	장구	장구	장구	장구	장구	장구	장구
	단소	단소	단소	단소	단소	단소	단소	단소	단소
악기				현악기	현악기				
					쟁과리		쟁과리		
							소금	소금	
국악기악관련내용				풍물놀이 사물놀이			풍물놀이		
		단모리 장단 정간보			해금		당김음 장단치기		

국악기중 9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장구와 단소의 게재된 내용을 비교

59) 두산 음악 교과서의 '기악(장구)'는 장구로, '기악(단소)'는 단소로 명칭 함

성안당 음악 교과서의 장구 연주하기는 장구로 단소 연주하기는 단소로 명칭함. '전통 현악기'는 현악기로 명칭 함.

세광 음악 교과서의 장구 연주법은 장구로, 단소 연주법은 단소로 명칭함. 또 쟁과리 연주법은 쟁과리로, 동·서양의 현악기는 현악기로 명칭 함.

아침나라 음악 교과서의 '장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구를 쳐봅시다'는 장구로, '단소로 소리 내 봅시다' '단소의 운지법을 알아봅시다'는 단소로 명칭 함.

지학사 음악 교과서의 '장구 연주하기' '장구의 반주방법'은 장구로, '단소 연주하기'는 단소로, '쟁과리 구음'은 쟁과리로, '풍물놀이 장단익히기'는 풍물놀이로, '소금 연주법'은 소금으로 명칭 함.

도서출판 태성 음악 교과서의 '장구 연주'는 장구로, '단소 연주'는 단소로 명칭 함.

하여 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출판사별 장구의 게재된 내용 비교

구분	장구 설명	장구의 구조	부호의 명칭	연주법	구음	부호	서양 음표	연주 자세 사진	연습곡
교학사	○	○	○	○	○	○	○	×	민속악 장단
동진	×	○	×	○	○	○	○	×	세마치 장단
두산	○	○	×	○	○	○	○	×	콩새야 팔새야 (단모리 장단) 임금님의 행차 (취타 장단)
성안당	○	○	○	○	○	○	○	×	굿거리 장단
세광	○	○	×	○	○	○	○	○	세마치 장단
아침 나라	×	○	×	○	○	○	○	○	세마치 장단
지학사	×	×	×	○	○	○	○	○	연습보
천재 교육	○	○	○	○	○	○	○	○	
태성	○	○	○	○	○	○	○	×	민속악 장단

단소의 9종 교과에 게재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출판사별 단소의 게재된 내용 비교

구분	단소 설명	연주법 설명	운지법	반규법	단소 음역 악보	연주 자세 사진	단소 음공 명칭	연습곡
교학사	○	○	○	○	○	○	○	
동진	×	×	○	×	○	×	×	도라지 1마디
두산	×	○	○	×	○	○	○	
성안당	×	○	○	○	○	×	○	밀양 아리랑
세광	×	×	○	×	×	○	○	밀양 아리랑
아침나라	×	○	○	×	×	○	○	널리리야
지학사	×	○	○	×	○	○	×	새야새야
천재교육	×	×	○	○	×	○	○	
태성	○	○	○	×	○	○	○	새야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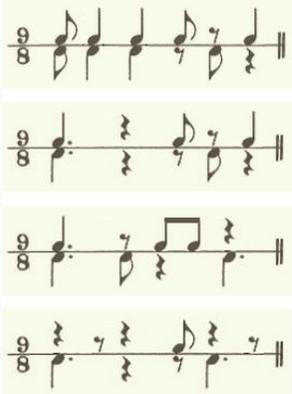
## 제 4 장 장구와 단소의 교수- 학습 지도 방안

### 제 1 절 장구 교수 - 학습 과정안과 지도 내용

다음 <표 15>는 2차시 장구 교수-학습 과정안 이다. 이미 1차시에 체재곡인 ‘밀양 아리랑’을 장구 장단으로 학습했다는 것을 예상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5> 장구 교수 - 학습 과정안

대 단 원	기 악 실 기		차시	2/2
	소 단 원	밀양 아리랑	통합학습	기악 실기
본시 차시	학 습 목 표	1. 장구에 대하여 알 수 있다. 2. 장구의 여러 가지 연주법을 알고 연주 할 수 있다. 3. 세마치장단의 기본장단과 변형장단을 알고 연주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다.		
지도 내용	학 습 내 용	교수 - 학습활동		비고
		교 사 활 동	학 생 활 동	
도입 (10분)	*출석확인 *전시확인 *본시안내	*출석을 확인한다. *지난시간에 배운 “밀양 아리랑”을 불러 본다. *학습목표를 제시 한 후 장구에 대하여 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알아본다.	*출석을 확인한다.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 혹은 장구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학습목표를 같이 읽은 후 선생님의 질문에 발표한다.	피아노 장구 멀티미디어 (ppt)

지도 내용	학 습 내 용	교수 - 학습활동		비고
		교 사 활 동	학 생 활 동	
전 개 (35분)	<p>*변형장단 익히기</p>	<p>*세마치장단의 변형장단을 시범 보여 준다</p> <p>*변형장단을 알고 구음 또는 무릎장단으로 연주해 본다.</p> <p>&lt;변형장단&gt;</p>  <p>*변형장단을 장구로 직접 연주해 본다.</p> <p>*민요“밀양 아리랑”을 기본 장단과 변형장단을 사용하 면서 불러본다.</p> <p>*역할을 나누어 서로 바꿔 가면서 불러본다.</p>	<p>*노래를 부르면서 세마치 장단을 연주해 본다.</p> <p>*선생님의 장구 시범을 본다.</p> <p>*변형장단을 구음으로 읽고 무릎장단으로 연주 한다.</p> <p>*변형장단을 장구로 직접 연주해 본다.</p> <p>*노래를 부르면서 세마치 장단을 연주해 본다.</p> <p>*노래를 부르는 분단과 장구연주를 하는 분단으 로 나누어 연주해 한다.</p>	장구 ppt 악보

지도 내용	학 습 내 용	교수 - 학습활동		비고
		교 사 활 동	학 생 활 동	
종결 (5분)	*종합지도	*기본장단만으로 연주 했을 때와 변형장단을 사용하여 연주 했을 때의 차이점과 느낀점을 질문한다.	*선생님의 질문에 발표 한다.	ppt
	*형성평가 *차시안내	*시험예상문제를 제시한다. *다음시간에 배울 차시를 안내한다.	*문제를 풀고 답한다. *차시의 안내를 받고 숙지한다.	

위에서 제시한 2차시 장구 교수-학습 지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출석체크를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밀양 아리랑’을 선생님의 피아노의 반주나 혹은 장구 반주에 맞추어 다같이 불러 본다. 모든 학생들이 밀양 아리랑의 노래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한다. 또한 오늘 수업의 학습목표를 선생님이 준비한 멀티미디어 자료인 파워포인트(ppt)를 보고 다같이 읽어본다. 여기서 학습 목표는 첫째, ‘장구에 대하여 알 수 있다’와 둘째, ‘장구의 여러 가지 연주법을 알고 연주 할 수 있다.’ 셋째, ‘세마치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장단을 알고 연주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다.’이다. 학습목표를 읽고 난 후 학생들이 본 수업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인지 대한 간단한 진단평가를 해본다. 진단평가는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제시한다. 진단평가<sup>60)</sup>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체크 한 후 학습목표에 따른 본격적

60) 1. ‘밀양 아리랑’의 장단은 무엇인가? (세마치장단)  
2. 세마치장단의 기본 장단은 무엇인가? (덩 덩 따쿵따)

인 수업을 시작한다.

오늘 배우게 되는 장구의 역사를 파워포인트(ppt)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 가죽으로 된 타악기의 하나인 장구는 양쪽이 크고 그 허리 부분이 가늘다 하여 세요고(細腰鼓)라고도 하나, 장구라는 명칭은 ‘채로 치는 북’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장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고려 문종(文宗) 30년(1076) 대 악관현방을 정리하였을 때 장고업사(杖鼓業師: 장구 연주자라는 뜻)가 있었다는 기록이다.<sup>61)</sup> 장구는 고려이후 당악·향악의 합주 및 노래와 춤의 반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지금도 장구는 관현합주·세악·독주반주·무용반주·농악·무악·정악·산조·잡가·민요 등 전통음악 전반에 걸쳐 편성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장구의 역사를 숙지시킨 뒤 장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파워포인트(ppt)를 보면서 설명해 준다. 장구는 원래 한 가지로 전래 하고 있지만 요즈음 음악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구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반주장구는 가곡 가사 시조 산조 무용 민요 잡가 등의 반주를 비롯하여 정악의 전반적인 반주를 하는 장구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구이다. 두 번째 무용장구는 장구춤 등을 출 때 장구가 너무 크면 그 무용의 춤사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장구를 무용하는 사람에 맞춰 작게 만들어 메고 춤을 추는데 이는 장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주장구에 비하여 그 소리는 매우 높고 가볍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농악의 장구로 농악을 할 때 사용하는 장구이며 전통장구에 가까우나 사람에 따라, 또는 지방에 따라 그 크기가 각각 다르다.

장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통음악의 관현악합주에서 장구는 지휘자

---

61) 국립국악원, 『국악 교육의 이론과 실기』 (서울 : 국악연구실, 1990), 161쪽.

의 역할을 한다. 서양음악에서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음악을 연주하지만 전통음악에서는 장구의 장단에 따라 합주를 한다. 즉 장구 연주자의 시작과 끝을 장구로써 알려준다거나 강약을 이끌어 간다거나 박자의 변화나 빠르기의 변화를 알려준다거나 하며 음악을 이끌어 간다. 두 번째는 반주자의 역할이다. 합주에서는 장구 연주자가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반주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주나 독창, 병주나 소규모의 합주를 세악이나 현악합주에서는 장구로 반주를 한다. 즉 전통음악에서는 판소리를 제외하고는 장구가 반주를 한다.

장구의 종류와 역할을 숙지시킨 후 장구의 구조와 명칭을 파워포인트(ppt)와 실제 장구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파워포인트(ppt)에는 장구 구조와 명칭 나와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실제 장구를 보면서 명칭을 설명해 준다. 장구는 통의 양쪽에 가죽을 묶어 만든 양면고(兩面鼓)이다. 통은 허리 부분이 가늘고 잘록한 모양이다. 통의 재료는 원래 사기, 기와, 나무 등을 두루 썼으나 지금은 나무를 많이 쓰는데 나무 중에서도 오동나무가 그 으뜸이고 미루나무를 사용하기도 한다. 통에는 북편과 채편이 있는데 북편의 가죽은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사용하며 그 소리는 낮고 채편은 말가죽이나 개가죽을 사용하며 그 소리는 북편보다 높다. 북편과 채편의 가죽은 원철이라는 둥그런 쇠, 즉 철재를 사용하며 가죽을 부착하는데 북편의 원철이 채편의 원철보다 약간 크다. 조이개(축수, 또는 부전)를 채편 쪽으로 죄이면 음이 높아지고 북편 쪽으로 풀면 음은 낮아진다. 북편의 음은 대략 임종(임종 : Bb)정도의 높이면 연주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한다. 즉 장구는 팀파니처럼 음을 완벽하게 조율 할 수는 없어도 음악을 연주하기 적당하게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장구의 연주자세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선생님이 장구를 놓고 직접 자세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학생들의 자세를 둘러보면서 교정시켜 준다. 먼저 장구 놓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구를 앉아서 연주하는 것은 사물

놀이가 시작된 이후에 많이 보급되어진 형태이다. 먼저 장구를 적당한 거리에 두고 쳐야 한다. 거리는 허리를 편 상태에서 양 팔이 자연스럽게 펴져 있는 거리이다. 장구의 위치는 장구를 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단용 장구를 위한 외장구의 위치와 풍물굿용 장구를 위한 양장구의 위치가 있다. 풍물굿용 장구를 치기 위해서는 양장구의 위치에 장구를 놓아야 한다. 양장구라고 하는 것은 궁채로 궁편도 치고 채편도 칠 수 있도록 채를 잡고 치는 것을 말한다. 양장구를 치기 위해서는 궁채를 왼 손이 궁편도 치기 쉽고 채편도 치기 쉬운 위치에 장구를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구의 조롱목이 궁편 왼 손이 어깨 부위와 나란히 놓아야 한다. 장구를 너무 몸 쪽으로 당기면 연주하는 팔이 좁아져 웅색한 모습이 되기 쉽다. 양팔이 시원스럽게 펴져 있을 거리까지 장구를 밀어 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장구가 너무 멀지 않은가 할 정도의 거리이다. 장구를 멀리 두고 허리를 펴서 호흡에 의해 장구에 다가가서 장구를 연주해야 하는 것이다. 즉 장구를 내게 당겨 오게 하지 말고 내가 장구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장구 잡는 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장구를 연주하게 되면 궁편과 채편이 동그란 원형이기 때문에 잘 굴러가 버리거나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어야 하는데 그 용도에는 발을 이용해야 한다. 오른발로 채편 변죽을 눌러주고 왼발로는 오른발과 같이 변죽 안쪽 부분을 잡아주든지 숫바 사이로 넣어서 조이개(부전)를 왼발 옆 등으로 눌러 주어야 한다. 어느 악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구를 칠 때에도 긴장을 풀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쳐야 한다. 자세는 양쪽 무릎이 장구의 북편과 채편사이에 들어가도록 앉는 것이 원칙이나 장구가 작거나 몸이 크거나 할 때의 경우에 따라 약간 비스듬히 장구를 놓거나 앞에 놓으면 된다. 준비 자세는 장구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양장구 치는 위치에 두고 양발로 장구를 잡는다. 궁채를 왼 팔을 자연스럽게 펴서 궁편 테 위에 놓고 채편을 왼 손도 자연스럽게 펴서 ‘따’를 친 상태를 유지하고 허리는 펴고 정면을 바라보면 된다.

다음은 궁채와 열채 잡는 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궁채 쥐는 법은 궁채를 쥐는 손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에 궁채의 손잡이 윗부분을 넣어 잡고 손잡이 아랫부분은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오게 하여 전체적인 모양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모습을 한다. 손잡이 아랫부분을 대개 손가락 첫째 마디나 손톱 위에 오도록 하여 잡고 그 잡은 공간에 달걀 한 개 크기 정도의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열채 쥐는 법으로는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와 집게손가락 손바닥에서 첫째 마디로 열채 손잡이 부분을 잡는다. 나머지 손가락으로 손잡이 부분을 가볍게 쥘다. 맨손타법은 팔을 곧게 펴지 말고 ‘L’자 형태가 되도록 한다. 손은 손가락을 모두 펴서 모지는 북편 윗쪽으로 가게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북편을 친다. 다른 손바닥을 붙여서 북편에 대고 친다. 북편의 팔은 가슴 높이 까지 올렸다가 치기도 하고 엄지는 대고 다른 손가락으로 치기도 한다. 즉 음의 길이가 긴 장단을 칠 경우에는 팔을 올렸다 치고 음의 길이가 짧은 장단은 엄지는 북편 윗부분에 대고 다른 손가락으로만 치는데 이때 손가락 끝 부분이 북편의 가운데 부분을 쳐야한다. 이것은 음악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치면 된다. 이러한 동작은 궁구리채를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이다. 엄지를 북편의 윗부분에 얹고 치는 방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식지나 장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북편과 채편의 연주법이다. 연주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하고 직접 연주법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준다. 북편을 연주하는 법도 어떤 음악을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먼저 농악에서는 궁구리채<sup>62)</sup>을 가지고 친다. 이는 무용이나 사물놀이에서도 같다. 반주 장단을 연주 할 때는 합주나 중주, 독주, 독창의 반주에서는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친다. 채편은 변죽을 칠 때에는 현악기 중심의 관현합주, 세악독주, 독창, 가곡반주 등의 반주, 즉 비교적 음량이 적은 음악을 연주할 때는 변죽(채편의 가장자리)을 친다. 북편을 칠 때는

62) 대나무 뿌리에 동그랗게 깎은 박달나무를 꽃아서 만든 것

관현합주, 농악, 무악, 사물놀이 등에서는 북편을 친다. 채편을 치는 요령은 변죽을 칠 경우에는 채를 가볍게 쥐고 모지와 식지로 채를 누르듯이 잡고 장지, 무명지 소지는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친다. 북편을 칠 경우에는 채편이 북편 중앙에 닿아야 하고 변죽을 칠 경우에는 변죽의 중앙을 치도록 해야 한다. 장구를 칠 때 거칠은 소리가 나거나 틈의 둘레를 쳐서 나무소리가 나거나 원철을 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안되고 청량한 소리가 나와야 한다. 장구의 갈라치기 주법은 속도가 빠른 음악에서는 손을 올리지 않고 박자에 맞추어 장구를 치지만 아주 느린 음악에서는 합장단을 칠 때 채편을 먼저 치고 나중에 북편을 치는 연주법이다

다음은 장구의 구음표와 구음에 따른 연주법을 설명해 주고 지도한다. 장구의 연주법에는 합장단(雙:쌍), 북(鼓: 고), 채편(鞭:편), 굴림채(搖: 요)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합장단은 북편과 채편을 함께 치는 장단으로 “㉠”로 표기 하며 “덩” 또는 “땡”이라고 하고 북편을 왼손으로 치는 주법을 “○”로 표기 하고 “궁” 또는 “쿵”이라고 한다. 채편의 “J”연주로 “ | ” 로 표기하며 “덕” 또는 “떡”으로 구음 한다. 구음별 장구의 주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파워포인트(ppt)로 통해 표로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그에 따른 연주법을 직접 연주해서 보여주고 따라 하도록 한다. ‘덩’ (땡)의 연주 방법은 오른손 채와 왼손을 가슴높이까지 들어 올려 호선을 그으며 내리는 동시에 친다. 속도가 빠른 음악에서는 손을 올리지 않고 치며 대개 장단의 첫박에 사용한다. 또한 아주 느린 장단에서는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지 않고 “기덕쿵”으로 채편을 제1박으로 북편을 제2박으로 나누어 속도 조절 한다. ‘덕’ (떡)은 채를 모지와 식지 사이에 끼고 장지, 무명지, 소지로 채를 잡고 치는 주법이다. 열채를 든 손은 손등이 밖으로 먼저 나가 겨드랑이가 들려져서 나온 팔 전체의 모습이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칠 때는 손목 안쪽이 먼저 들어와 채편과 변죽이 꺾여지는 데를 밀어서 쳐주어야 한다. 쳤을 때는 열채 끝이 채편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열채중간은 채편과 변죽이 꺾여지는 곳에 붙어 있어야 한

다. ‘따’도 마찬가지로 호흡에 의해 쳐야하며 전체적인 모습이 부드러운 곡선이 되어야 한다. 쿵 (궁)의 연주법으로는 왼손바닥으로 장구의 북편을 치는 주법이다. 음악의 속도에 따라 손을 들어 치거나 손을 엮고 치거나 한다. 궁채를 사용 하였을 때는 궁채를 든 손은 손목의 힘을 빼고 그 빠진 상태에서 팔을 펴서 들어야 한다. 그리고 호흡에 의해 든 손은 가장 윗 부분에서 팔을 감아서 다시 펴는 동작에서 궁편을 친다. ‘궁’치는 동작이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해야하고 손을 올릴 때는 향아리를 안아 올리듯 한 모습이어야 한다. 넘겨서 치는 것도 같이 ‘궁’으로 표현한다. ‘쿵’으로 표현하여 ‘궁’과 구별하여 쓰기도 한다. ‘궁’을 넘겨서 채편을 칠 때는 가급적 숫바(줄)에 붙여서 넘기고 다시금 궁채를 궁편에 넘겨 올 때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반원을 그리면서 넘어 온다. ‘더러러’ 는 장구채의 굴러서 내는 채 굴림 이다. 초보자는 제대로 연주하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기덕은 “떡”앞에 장식음이 붙은 주법이다. 모지와 식지로 “더”를 가볍게 빨리 친 다음 재빨리 손을 오므려서 “떡”을 치면 된다. 순간적으로 이완된 근육을 긴장시키는 연습이 필요한 주법이다. ‘더’ 는 장구 채 끝으로 채편을 약하게 찍어 주는 주법으로 주로 약박에 사용된다.

다음으로는 ‘밀양 아리랑’의 장단인 ‘세마치장단’의 기본형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본시안내의 진단 평가에서 이미 ‘세마치장단’의 기본형을 숙지했기에 바로 ‘세마치장단’의 장구 연주법을 지도한다.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인 후에 학생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돌아보면서 연주가 어려운 학생들의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 어느 정도 세마치장단의 기본형을 연주 할 수 있게 되면 지난 시간에 배운 ‘밀양 아리랑’의 노래에 맞춰 연주 하게 한다. 장단을 치면서 노래 부를 때와 노래만 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 해 본다.

다음엔 ‘세마치장단’의 변형 장단을 알아본다. 파워포인트(ppt)에 변형 장단을 보이게 하고 학생들이 구음으로 읽어보도록 한다. 변형장단이 입에서 익숙해 질 때

쥘 손으로 무릎장단을 치게 한다. 그리고 무릎장단이 익숙해 질 때 쥘 장구로 직접 연주해 본다. 먼저 선생님의 시범을 본 후 학생들이 따라하도록 한다. 변형장단이 익숙해지면 ‘밀양 아리랑’의 악보를 보고 변형장단을 연주해야 할 부분을 인식하게 하여 기본장단과 변형장단을 연주해야 할 부분을 알게 한다. 그리고 난 후 노래를 부르면서 ‘세마치장단’의 기본장단과 변형장단을 장구로 직접 연주해 본다. 그리고 역할을 나누어 로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고 노래 불러본다. 이번엔 기본 장단으로만 연주했을 때와 변형장단을 같이 연주 했을 때의 느낌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 해 본다.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형성평가를 한다. 형성평가는 파워포인트(ppt)에 형성평가<sup>63)</sup> 문제를 보여주고 질문의 답을 확인해 본다.

형성평가를 끝낸 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차시를 안내하고 장구의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한다.

## 제 2 절 단소 교수 - 학습 과정안과 지도 내용

다음 <표 16>은 2차시 단소 교수-학습 과정안 이다. 이미 1차시에 제재곡인 ‘도라지 타령’을 학습했다는 것을 예상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6> 단소 교수-학습 과정안

대단원	기 악 실 기		차시	2/2
본시 차시	소 단 원	도 라 지 타 령	통합학습	기악 실기
	학 습 목 표	1. 단소에 대하여 알고 정간보를 읽을 수 있다. 2. “도라지타령”을 정간보를 보면서 단소 연주를 할 수 있다.		

63) 1. 세마치장단의 기본형을 구음으로 쓰시오 <덩 덩 덕쿵덕>  
 2. 세마치장단의 변형 장단 중 맺음 장단을 구음으로 쓰시오 <덩 파쿵>

지도 내용	학 습 내 용	교수 - 학습활동		비고
		교 사 활 동	학 생 활 동	
도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확인</li> <li>*전시확인</li> <li>*본시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을 확인한다.</li> <li>*지난 시간에 배운“도라지타령”를 불러 본다.</li> <li>*학습목표를 제시 한 후 단소와 정간보에 대하여 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알아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을 확인한다.</li> <li>*선생님의 피아노 반주 혹은 장구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li> <li>*학습목표를 같이 읽은 후 선생님의 질문에 발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아노 장구</li> <li>멀티미 디어 (ppt)</li> </ul>
전개 (3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소의 특징 알기</li> <li>*단소 연주 자세 익히기</li> <li>*정간보 익히기</li> <li>*단소 연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소의 역사와 악기 특징을 설명해 준다.</li> <li>*단소의 음정을 설명해 준다.</li> <li>*단소의 연주 자세와 운지법을 설명해 준다.</li> <li>*정간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는 방법을 설명한다.</li> <li>*정간보를 보면서 기초 연습을 해 본다</li> <li>*민요“도라지타령”을 정간보로 읽어본다.</li> <li>*민요“도라지타령”을 단소로 연주해 본다.</li> <li>*분단으로 나누어 연주해 보고 서로의 느낀점을 질문 해 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와 악기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듣는다.</li> <li>*선생님의 연주 자세를 보고 따라 한다.</li> <li>*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듣는다.</li> <li>*정간보를 보고 읽어본다.</li> <li>*단소로 연주해 본다.</li> <li>*분단별로 나누어 연주하고 감상해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pt</li> <li>정간보</li> <li>악보</li> <li>단소</li> </ul>

지도 내용	학 습 내 용	교수 - 학습활동		비고
		교 사 활 동	학 생 활 동	
종결 (5분)	*종합지도  *형성평가  *차시안내	*단소의 운지법과 정간보에 대하여 잘 이해하였는지 질문해 본다.  *시험예상문제를 제시한다.  *다음시간에 배울 차시를 안내한다.	*선생님의 질문에 발표한  *문제를 풀고 답한다.  *차시의 안내를 받고 숙지한다.	ppt

위에서 제시한 2차시 단소 교수-학습 지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출석체크를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도라지 타령’을 선생님의 피아노의 반주나 혹은 장구 반주에 맞추어 다같이 불러 본다. 모든 학생들이 도라지 타령의 노래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한다. 또한 오늘 수업의 학습목표를 선생님이 준비한 멀티미디어 자료인 파워포인트(ppt)를 보고 다같이 읽어본다. 여기서 학습 목표는 첫째, ‘단소에 대하여 알 수 있다.’와 둘째, ‘정간보를 알고 읽을 수 있다.’ 셋째, ‘도라지타령을 정간보를 보면서 단소 연주를 할 수 있다.’이다. 학습목표를 읽고 난 후 학생들이 본 수업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대한 간단한 진단평가를 해본다. 진단평가<sup>64)</sup>는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제시한다.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체크 한 후 학습목표에 따른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한다.

오늘 배우게 되는 단소의 역사를 파워포인트(ppt)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 단소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통소와

64) 1. ‘도라지 타령’의 장단은 무엇인가? <세마치 장단>

2. 기본 5음의 율명은 무엇인가? <仲(중)·林(임)·無(무)·潢(황)·汰(태)>

함께 고려시대 이전부터 민간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또한 향(鄕)피리나 아쟁(牙箏)과 함께 민간의 풍류음악 연주에 알맞도록 음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조선조(朝鮮朝)말에 현재와 같은 악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단소의 역사를 숙지시킨 뒤 단소의 특징을 파워포인트(ppt)를 보면서 설명해 준다. 단소는 약 두 옥타브 반에 이르는 음역(音域)을 가지고 있으며, 음색이 비슷한 상황이나 양금 또는 해금과도 조화를 잘 이루어 2중주 혹은 3중주로도 연주된다. 특히 단소는 악기가 작아서 휴대하기가 간편하며 음색이 맑고 청아(淸雅)해서 독주악기로도 널리 사용된다. 또한 실내악이나 줄풍류(현악합주)연주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가곡이나 시조반주에도 사용이 된다.

학생들에게 단소의 특징을 숙지시킨 시킨 후 단소의 음정을 설명해 준다. 단소의 기본 5음은 仲(중)·林(임)·無(무)·潢(황)·汰(태)은 아랫단으로 솔·라·도·레·미이며, 높은단은 삼수변이 하나 더 붙는다. 음정 관계와 옥타브 위음과 아래음의 표기방법은 파워포인트(ppt)로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기본음은 삼수변이나 사람인변이 붙지 않는다. 삼수변 하나는 한 옥타브 위음을 나타낸다. 삼수변이 두개 붙으면 두 옥타브 위음을 나타낸다. 또 사람인변 하나는 한 옥타브 아래음을 나타내며, 사람인변 둘은 두 옥타브아래음을 나타낸다.

학생들에게 단소의 음정을 숙지시킨 후 단소의 연주 자세와 운지법을 파워포인트(ppt)를 보면서 설명해 준다. 먼저 단소는 악기의 특성상 그리 소리내기 쉽지는 않지만 소리를 내려면 입술 모양이 중요하다. 입술 모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랫입술을 완전히 피는 것이다. 아랫입술이 피지지 않으면 제대로 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입술 모양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 단소를 부는 앞에서 본 자세는 시선이 너무 아래를 향해도 안되고 너무 위를 향해도 안된다. 팔은 자연스럽게 양쪽 겨드랑이에 붙이게 하는 것이 좋다. 옆에서 본 자세도 위와 같은 것이 가장 좋다. 너무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똑바로

펴지 않은 자세는 올바른 소리를 내기 어렵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선의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시선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위의 자세를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손잡는 방법은 힘을 뺀 상태에서 손가락 모양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단소를 잡으면 된다.

다음으로는 단소의 운지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단소의 제 1지공은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제2지공은 왼손의 검지손가락으로, 제3지공은 왼손의 장지손가락으로 막는다. 제4지공은 오른손의 장지손가락으로 막고 제5지공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 왼손의 엄지와 오른손의 엄지는 단소 뒤 보내서 단소를 받쳐 들어야 한다. 먼저 仲(중)은 왼손1,2,3지공을 막고 오른손으로 4지공을 막고 약간 분다. 이것을 약간 세계 불 경우는 洵(중) 음정이 나온다. 林(임)은 왼손으로 1,2,3지공을 막고 오른손의 4지공을 뚫는다. 약간 세계 불 경우 淋(임) 음정이 나온다. 다음은 無(무) 음정이다. 무는 왼손의 1,2번 지공을 막고 3,4번의 지공을 뚫는다. 이것을 세계 불 경우 無(무) 음정이 된다. 潢(황)은 1지공을 막고 2,3,4지공을 뚫는다. 이것을 세계 불 경우 潢(황)의 음정이 나온다. 汰(태)는 1,2,3,4지공을 다 떼고 김을 약간 세계 넣는다. 湫(태)는 1,3지공을 막고 2,4번의 지공을 떼고 김을 세계 불어 넣는다. 漣(중)은 1,2,4지공을 막고 3지공을 뚫는다. 이 음정은 단소의 제일 높은 소리이다. 南(남)은 1,2,4지공을 막고 3번의 지공을 뚫는다. 이것을 약간 세계 불면 瀟(남)의 음정이 된다. 이 운지법을 숙지하고 음정을 낼 때에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연습해 보도록 한다.

다음은 정간보란 무엇이며 정간보를 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정간보란 우물정(井)자 모양안에 여러 개의 음명 [예: 仲 · 林 · 無 · 黃 · 汰] 을 적어 넣어 음정의 높고 낮음과 박자를 표시한 악보로, 한 칸 [一井間] 을 한 박으로 쳐서 음의 시가(時價)를 나타내는 세종대왕이 창안하신 우리나라 고유의 악보이다. 정간보를 보는 방법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로 '우리나라 꽃'을 정간보로 옮겨 설명한다.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읽을 수 있으면 정간보

보는 법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 연습곡으로 단소 연주를 해본다. 연습곡은 부록으로 첨부 하겠다. 연습곡을 숙지 한 뒤, 제재곡인 ‘도라지 타령’의 정간보를 읽어보고 단소로 연주 해 본다. 어느 정도 연주가 익숙해지면 분단으로 나누어 연주해보고 서로의 느낀 점을 질문 해 본다. 또 단소의 운지법과 정간보에 대하여 잘 이해하였는지 질문해 본다.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형성평가를 한다. 파워포인트(ppt)에 형성평가<sup>65)</sup> 문제를 보여주고 질문해 봄으로써 오늘의 단소 수업을 마치도록 정리한다

형성평가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차시를 안내하고 단소를 정리 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한다.

## 제5장 결 론

음악 학습에 있어서 기악활동은 가창이나 감상 등 다른 활동이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악기를 통하여 음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음악을 들을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예술적 · 감정적 · 정서적 ·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기악활동은 다른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현행 중학교 음악교육과정인 가창중심수업과 기악중심수업, 창작중심수업, 감상중심수업 중 기악중심수업에 관하여 중학교 1학년 9종의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기악활동으로 나온 장구와 단소의 연주법을 배우는 방법을 토대로 교수-학습 과정안과 지도 방안 연구 하여 보았다.

65) 1. 우물정(井)자 모양안에 여러 개의 음명 [예: 仲 · 林 · 無 · 黃 · 汰] 을 적어 넣어 음정의 높고 낮음과 박자를 표시한 악보로, 한 칸 [一井間] 을 한 박으로 쳐서 음의 시가(時價)를 나타내는 세종대왕이 창안하신 우리나라 고유의 악보는 무엇인가? <정간보>  
 2. 단소의 연주시 1,2,3,4지공을 다 떼고 김을 약간 세계 넣으면 어떤 울명 인가? <汰(태) >

먼저 교수-학습 과정안과 지도 방안을 연구하기 전에 9종의 음악교과서에 게재된 장구와 단소의 분석 결과, 각각의 교과서가 출판사별로 그 게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악기 설명과 연주법 등을 교사나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또 이러한 기악 연주 수업을 정규 음악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 자신이 우리 음악의 바른 전달자가 되기 위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업 자료 개발과 교사의 국악기 연주 능력의 향상과 지도 능력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다.

또,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창의적인 학습과정이 일어나도록 학습목표와 학습내용과 학습평가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출판사 마다 기악곡의 수준이 다양하므로 각 학년에 따른 국악 기악곡 학습난이도를 정하고 중학생의 수준에 맞는 곡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초등학교 기악 학습과 연계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악기에 관한 기초들을 보다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 내용만 보고도 스스로 연주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게재된 악기 연주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구성해야 한다.

이렇듯 국악 기악의 수업 활동만으로도 전통음악에 관한 관심과 재미있는 악곡들을 개발 하여 학습자가 가장 먼저 우리의 것을 찾고, 흥미와 학습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참고 문헌

- 고춘선 외(2001). 중학교 음악1.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1). 중학교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지학사.
- 국립국악원(1990). 국악의 이론과 실기. 서울 : 국악연구실.
- 권덕원 외(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 김두봉(2005).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제재곡 분석 연구:중학교 2학년 국악 기악 내용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 김윤주(2008).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의 국악기 내용 분석 연구 :제재곡 및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외(2001). 중학교 음악1. 서울 : (주)천재교육.
- 김준수 외(2001). 중학교 음악1. 서울 : 동진음악출판사.
- 백미선(2006).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사물놀이 학습내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 석문주 외(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 교육과학사.
- 양종모, 이경언 (2001).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연구(I). (연구보고 RRC 2001-13). 서울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윤경미 외(2001). 중학교 음악1. 서울 : (주)아침나라.
- 윤명원(2004). 국악교육논총. 서울 : 국악춘추사.
- 윤명원 외(2001). 중학교 음악1. 서울 : 지학사.
- 이동남(2001). 유아 및 초중등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 용인 : 경기 문화의 전당 국악당.
- 이성천 외(2004). 알기 쉬운 음악개론. 서울 : 도서출판 풍남.
- 이주연(2007).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9종 음악 교과서 분석 연구 : 중학교 1학년 국악 기악 내용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 이홍수 외(2001). 중학교 음악1. 서울 : (주)두산.
- 임수정(1999). 장구 교본. 서울 : 민속원.
- 서한범 외(2002). 중학교 음악1. 서울 : 도서출판태성.
- 장미영(2008). 소금지도의 효율적인 학습 방안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장사훈(1980). 국악총론. 서울 : 정음사.

전영태(2003). 소금의 단계적인 연주지도 방안 연구. 진주 :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조성례(1982). 초보자를 위한 단소교본. 서울 : 도서출판 한소리.

조창제(2002). 중학교 음악1. 서울 : 교학 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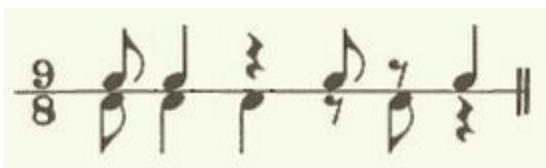
최필립 외(2001). 중학교 음악1. 서울 : 성안당.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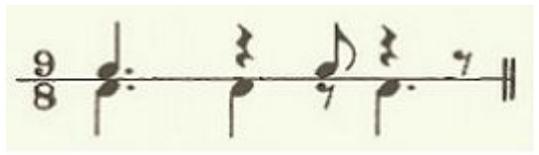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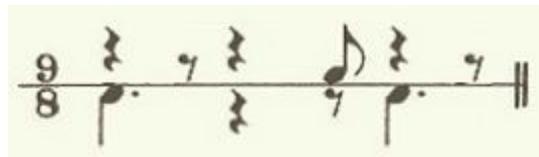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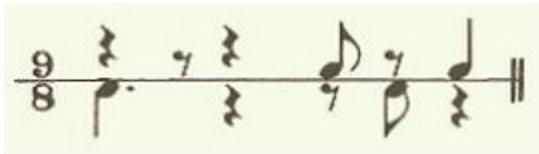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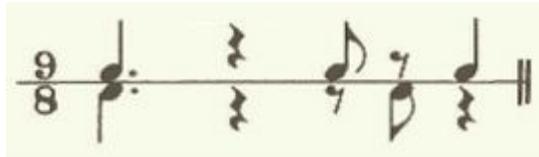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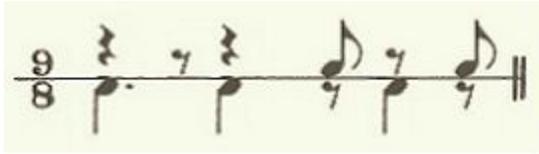
<부록 1> 세마치장단의 기본 장단



<부록 2> 세마치장단의 변형 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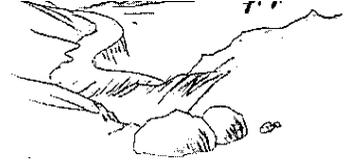
<부록 2> 세마치장단의 변형 장단>



<부록 3> 밀양 아리랑의 변형 장단 연주 악보

# 밀양 아리랑

[제창]



세마치장단

경상도민요

1. 날쫄 보--소 날쫄 보--소 날 쫄- -보-- 소 - - - -  
 2. 정든 님--이 오셨 는--데 인 사- 도못-- 해 - - - -

동 지 선 달-- 꽃 본 듯-이- 날 쫄-- 보 소 - - -  
 행 주 치 마-- 입 에 물 -고- 입 만-- 방 곳 - - -

아 리 아 리 랑 스 리 스 리 랑 아 라 리-가 닐-- 네 - - - -

아 리 랑-- 고 개 -로- 날 념-겨 주 소 - - -



<부록 5> 정간보

도라지 타령

潢汰	얼	汰	에	林	에	潢汰	대	汰	한	潢汰	심	汰	도
汰	씨	汰	야	林無	헤	汰	구	汰	두	汰	심	汰	라
汰	구	汰	라	仲	요	汰	니			汰	ㅣ	汰	지
潢汰	종	汰	난	林	에	潢汰	철	汰	뿌	潢汰	산	汰	도
潢無	구	一潢	ㅣ	林無	헤	潢無	철	一潢	리	潢無	천	一潢	라
林仲	나	無	다	仲	요	林仲	철	無	만	林仲	에	無	지
林	내	沖沖	지	無	에	林	다	沖	캐	林	백	沖	백
無	사	沖	자	無	헤	無	넘			無	도		
林	랑	淋沖	ㅣ	一潢	ㅣ	林	는	淋沖	어	林	라	淋沖	도
仲	아	汰	종	無	요	仲	다	汰	도	仲	지	汰	라
		一潢	ㅣ					一潢	ㅣ			一潢	ㅣ
		無	다	潢	ㅣ			無	ㅣ			無	지

세마치